

碩士學位論文  
指導教授 金 璟 培

# 國民學校 教師의 教職觀에 관한 研究

A Study on the Primary School Teacher's Teachership-View

1992年

漢城大學校 行政大學院

教育行政學科  
教育行政專攻

朴 俊 會

碩士學位論文  
指導教授 金 璟 培

# 國民學校 教師의 敎職觀에 관한 研究

A Study on the Primary School Teacher's Teachership-View

위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1992年 12月 日

漢城大學校 行政大學院

教育行政學科  
教育行政專攻

朴 俊 會

朴俊會의 教育學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1992年 12月 日

審查委員長 ⑩

審查委員 ⑩

審查委員 ⑩

# 目 次

|             |    |
|-------------|----|
| I. 緒 論      | 1  |
| 1. 研究의 必要性  | 1  |
| 2. 研究의 目的   | 2  |
| 3. 研究의 範圍   | 3  |
| 4. 用語의 定義   | 4  |
| 5. 研究의 制限點  | 4  |
| II. 理論的 背景  | 5  |
| 1. 敎職과 敎職觀  | 5  |
| 1) 敎職의 特性   | 5  |
| 2) 敎職觀의 概念  | 8  |
| 3) 敎職觀의 類型  | 8  |
| 2. 敎職의 專門性  | 12 |
| 1) 敎職專門性    | 12 |
| 2) 바람직한 敎師像 | 16 |
| 3. 敎師의 地位   | 18 |
| 4. 先行研究 考察  | 21 |
| III. 研究의 問題 | 24 |

|                         |    |
|-------------------------|----|
| IV. 研究의 方法              | 25 |
| 1. 研究의 對象               | 25 |
| 2. 檢査의 道具               | 26 |
| 3. 資料의 處理               | 26 |
| V. 研究 結果 및 解釋           | 27 |
| 1. 國民학교 敎師의 敎職觀類型       | 27 |
| 2. 敎職의 專門性              | 31 |
| 3. 敎職專門性에 대한 敎職관유형별 반응  | 42 |
| 4. 敎師의 地位               | 43 |
| 5. 敎師의 地位에 대한 敎職관유형별 반응 | 51 |
| VI. 要約 및 結論             | 53 |
| 參考文獻                    | 58 |
| 附    錄                  | 62 |
| 英文抄錄                    | 67 |

# 表 目 次

|                                   |    |
|-----------------------------------|----|
| 〈表- 1〉 質問紙 配付 및 回收 現況             | 25 |
| 〈表- 2〉 質問紙 問項 構成表                 | 26 |
| 〈表- 3〉 敎師集團의 敎職관유형별 分布 狀況         | 27 |
| 〈表- 4〉 性別에 따른 敎職관유형 비교            | 28 |
| 〈表- 5〉 年齡別 敎職관유형 비교               | 29 |
| 〈表- 6〉 學力別 敎職관유형 비교               | 30 |
| 〈表- 7〉 補職別 敎職관유형 비교               | 31 |
| 〈表- 8〉 敎職의 전문성에 대한 敎사의 반응         | 32 |
| 〈表- 9〉 敎사양성제도의 敎職전문성 기여도에 대한 반응   | 34 |
| 〈表-10〉 現職연수의 敎職전문성 기여도에 대한 반응     | 35 |
| 〈表-11〉 대학원 敎育의 敎職전문성 기여도에 대한 반응   | 37 |
| 〈表-12〉 敎職의 自律性에 대한 반응             | 39 |
| 〈表-13〉 국민학교 敎사의 研究활동에 대한 반응       | 41 |
| 〈表-14〉 敎職전문성에 대한 敎職관유형별 반응        | 42 |
| 〈表-15〉 敎職전문성에 대한 敎職관유형별 평균치와 표준편차 | 42 |
| 〈表-16〉 국민학교 敎사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반응     | 44 |
| 〈表-17〉 국민학교 敎사의 경제적 대우에 대한 반응     | 45 |
| 〈表-18〉 敎사 복지후생제도에 대한 반응           | 47 |

|                                    |    |
|------------------------------------|----|
| 〈表-19〉 교육 자주성 및 중립성에 대한 반응         | 48 |
| 〈表-20〉 국민학교 교사의 업무량에 대한 반응         | 50 |
| 〈表-21〉 교사의 지위에 대한 교직원유형별 반응        | 52 |
| 〈表-22〉 교사의 지위에 대한 교직원유형별 평균치와 표준편차 | 52 |

# I. 緒 論

## 1. 研究의 必要性

오늘날 우리 사회는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과학기술과 산업이 고도로 발전하는 현대사회 속에서, 교육활동은 그 규모가 방대해지고 그 기능 역시 다양해지고 있다. 이러한 현대사회의 변화 속에서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의 인식은 날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으며, 교육은 개인적 행복의 증진은 물론 사회발전 및 社會福祉의 증진에도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따라서, 현대사회에 있어서 교육은 개인의 自己實現과 福祉向上의 手段을 넘어서 국가의 발전은 물론 민족의 보존과 발전을 위한 원동력으로서 더욱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sup>1)</sup>

문명의 발달로 인하여 다양한 매스미디어를 통한 넓은 의미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교사의 손을 거치지 않고는 正式敎育이 이루어질 수 없다. 교육의 성과를 좌우하는 要因에는 교사, 학생 및 교육내용이 있지만, 敎師要因이 가장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Bruner는 그의 著書 “敎育의 過程”에서 오늘날의 학교수업에서 교사는 수업의 主된 敎具라고하여 교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하였다.<sup>2)</sup> 특히 어린이들의 全人敎育의 시초를 담당한 국민학교 교사의 역할은 교육활동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의 지적, 정서적, 도덕적, 사회적 성숙에 이르기까지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교사가 어떠한 교직관을 가지고 교육활동에 임하느냐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교육의 主體로서의 교사는 학습지도와 생활지도를 中核

1) 金鍾喆 外, 敎師論(서울:科學敎育社, 1991), P. 16.

2) J. S. Bruner, The Process of Education (New York: Alfred Knopf, INC. and Random House, INC., 1963), P. 88.

으로 하는 교육활동뿐만 아니라 잠재적 敎育課程에 이르기까지 학생에게 깊은 영향을 주는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는 것이다.

또한 오늘의 우리 사회의 필요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에 있어서는 人間敎育이 강조되며, 개성의 신장이나 정신 건강의 증진과 같은 非知的 特性의 육성이 요망되고, 그것은 오직 교사에 의해서만이 가능한 것이다.<sup>3)</sup> 따라서 교사가 가르친다는 것이 단지 지식을 전달하는 것만이 아니라, 교사와 아동의 인격적 상호 접촉을 통하여 아동을 바람직한 인간으로 형성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으며, 교육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의 內面的 意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교사가 가지고 있는 敎科目에 대한 지적 능력이나 교육방법, 지도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교사 자신의 敎職觀이며, 이 교직관이 어떠하냐가 교육의 효과를 결정짓고 더 나아가 교육발전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하겠다. 특히 현대사회의 급격한 산업화로 말미암아 전통적 사회구조와 價値觀이 크게 흔들리고 있음을 볼 때, 교사의 확고한 교육적 신념을 바탕으로한 교직관이야말로 교육의 성패를 좌우하는 관건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초등교사들이 자신의 직업 또는 그에 따르는 신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등의 교직관을 조사 분석한다는 것은 지금의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앞으로의 방향을 예견하는 자료가 될 수 있으며, 교사들에게 바람직한 발전적 교직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

3) 鄭元植, “現代社會에서의 敎育”, 서울特別市敎育委員會編, 敎職과 師道 (서울: 서울特別市敎育委員會, 1981), P. 38.

## 2. 研究의 目的

본 연구의 주된 目的은 국민학교 교사의 교직관유형(聖職觀, 專門職觀, 勞動職觀)은 그들의 背景變因에 따라서 어떻게 다르며, 敎職의 專門性과 교사의 지위는 그들의 배경변인과 교직관유형에 따라서 어떻게 다른가를 밝히는데 있다.

이상과 같은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究明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內容은 다음과 같다.

1) 국민학교 교사가 지각한 교직관유형(聖職觀, 專門職觀, 勞動職觀)은 그들의 배경변인에 따라서 어떠한 差異가 있는가를 알아본다.

2) 국민학교 교사가 지각한 敎職의 專門性에 대한 認識 程度는 그들의 배경변인에 따라서 어떻게 다른가를 알아본다.

3) 국민학교 교사가 지각한 敎職專門性에 대한 인식 정도는 그들의 교직관유형에 따라 어떻게 다른가를 밝힌다.

4) 국민학교 교사가 지각한 교사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그들의 배경변인에 따라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밝힌다.

5) 국민학교 교사가 지각한 교사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그들의 교직관유형에 따라서 어떻게 다른가를 밝힌다.

## 3. 研究의 範圍

본 연구는 서울市內 국민학교에 在職中인 교사들을 표집대상으로 性別, 年齡別에 따른 교직관을 조사 연구하였다. ( pp.25-26 참조 )

#### 4. 用語의 定義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用語를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 1) 敎職觀

敎職觀이란 교직을 어떻게 지각하고 기대하고 인식하느냐를 말한다. 교직관은 교직에 대한 지각을 의미하게 되지만 거기에는 認知的인 측면뿐만 아니라, 교직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도 포함된다.

##### 2) 現職研修

현직 교사를 대상으로 전문적 성장을 기하고 교사로서의 직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교육으로서의 資格研修와 一般研修 외에 학교별로 실시하는 自律研修도 포함된다.

##### 3) 교사 복지후생제도

교직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증진, 유지시키기 위하여 신체적, 정신적 삶의 質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급되는 봉급과 수당 이외의 제 급부시설을 말하며, 여기에는 연금, 의료보험 혜택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사회 복지와 공제회 등 교직단체를 통한 복지, 단위 학교가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식당, 휴게시설, 경조사업, 체육, 문화시설 등이 포함된다.

#### 5. 研究의 制限點

연구 대상이 서울市内 국민학교에 재직중인 교사에 限 하였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전국적으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 Ⅱ. 理論的 背景

### 1. 敎職과 敎職觀

#### 1) 敎職의 特性

교직이 일반적인 직업과 공통되는 점도 있겠으나 교직만이 지니는 다른點도 많은 바, 이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sup>4)</sup>

첫째, 교직은 인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직업이다. 물론 교직만이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법률가, 의사,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모두가 인간을 대상으로 하지만 인간 그 자체를 主對象으로 한다면 보다 법률이나 작품, 경제상품 또는 신체적·정신적 기능의 일부만을 취급한다. 그러나 교사가 대상으로 하는 인간이란 사람의 어느 부분적인 기능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全人으로서의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他職과 다르다.

둘째, 교직은 未成熟者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이다. 교사는 미성숙한 어린이나 학생으로 하여금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인간으로서 성장 발달을 해나가도록 교육하는 것이 주요 업무이며 훌륭한 인간상을 이상으로 하는 직업이다.

셋째, 교직은 奉仕職이다. 교직도 타직과 같이 직업이라는 점에서 의식주 해결의 한 수단적 기능을 가졌으나 그 특성상 봉사직으로서의 사명을 더욱 필요로 하는 직업이다. 따라서, 교직생활이 경제생활의 해결 방편만으로 끝나서는 아니되며, 召命意識과 사회봉사정신에 의하여 인간 개개인의 발전

---

4) 金鳳守, 敎師와 初等敎育(서울: 螢雪出版社, 1992), pp. 14-17.

은 물론 국가 민족의 발전, 나아가서는 인류사회의 발전을 위해 공헌해야 하는 직업이다. 교직을 聖職 또는 天職이라고 하는 경우는 바로 奉仕職으로서의 교직의 특성을 두고 하는 말이다.

넷째, 교직은 국가와 민족에 대하여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公共的 직업이다. 교직은 개인적으로 볼 때에는 被教育者와의 가장 친근한 私的인 관계에서의 인간관계를 맺는 동시에 사회적 입장에서 보면 국가나 민족의 장래에 대하여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公共職業인 것이다.<sup>5)</sup> 즉 교직은 국가와 민족의 운명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專門職(profession)이라는 것이다.

다섯째, 교직은 사회발전에서 중대한 역할을 맡고 있는 직업이다. 교사는 인류가 이룩해 놓은 문화유산을 다음 세대에 전달해야 하는 임무를 지니고 있는 동시에 나아가서는 보다 나은 문화창조의 主役으로 활동해야 하는 것이며, 곧 살기좋은 사회를 건설하는 課業에 主動的 역할을 해야하는 사명을 가진다. 따라서 교직은 현상유지에 급급하는 保守的인 성격이나 무사안일의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하여 사회개혁과 사회진보를 위하여 先導的 입장에는 적극적인 자세가 요청되는 것이다.

한편 金鐘喆은 교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누구나 공감하는 교직의 특성을 ① 안정성 ②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많은 점 ③ 자유 속에서 창의와 끊임없는 知的 자극을 누릴 수 있는 점 ④ 敎職生活의 보람은 남을 위한 봉사활동이라는 점 ⑤ 교직생활은 그 사회적 공헌에 있어서 어느 직업에 비하여도 손색이 없다는 점 ⑥ 교직생활은 끊임없는 자기 갱신을 통하여 고도의 自己實現을 도모하는 데 적합한 직업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sup>6)</sup>

5) 南億祐 外, 敎師論(서울:敎育出版社, 1992), p. 41.

6) 金鐘喆 外, 前掲書, pp. 41 - 44.

이상과 같은 설명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첫째, 교직은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전문직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교사는 긍지를 가지고 부단한 연구를 통해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익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교직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면서, 그 중에서도 미성숙자를 주로 가르친다는 점이다. 인간 특히 미성숙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교직을 수행하는 교사에게는 타직에 비유될 수 없이 큰 윤리성과 책임감이 뒤따른다.

셋째, 교직은 사회에 봉사하는 직업으로서 나아가서는 국가, 사회의 존망을 좌우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교직을 수행하는 교사는 확고한 교직관과 투철한 사명을 가지고 개인의 이익을 초월하여 국가, 사회의 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자세가 요구되는 것이다.

교사의 철학, 인격, 지식, 태도, 기술 등은 교육의 성격을 좌우한다고 말할 수 있다.<sup>7)</sup> 따라서 교사들이 어떠한 교직관을 갖고 교육활동에 임하는냐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열거한 교직의 특성을 교사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어떠한 태도로 교직에 임하느냐 하는 것은 교사마다 다를 수 있는 것이며 결국 교직관의 차이를 가져오는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좀 더 고찰하기로 한다.

---

7) Sidney Hook, Education for Modern Man(New York:The Dial Press, 1946), P.178.

## 2) 敎職觀의 概念

敎職觀이란 교직을 어떻게 知覺하고 기대하고 인식하느냐를 말한다.<sup>8)</sup> 즉 교직관에는 교직에 대한 知覺을 의미하게 되지만 거기에는 認知的인 측면 뿐만 아니라, 교직에 대한 태도나 가치관도 포함된다.<sup>9)</sup>

敎員들 자신은 물론 이요, 학생, 학부모, 나아가서는 사회인사 등이 교직을 어떻게 지각하고 그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와 價値觀을 가지게 되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 이다. 또 교원의 사회적 지위의 향상이나 敎權의 확립과 신장을 위해서도 중대한 의의를 가지게 된다. 뿐만 아니라, 교원들 자신을 비롯하여 敎育에 관심을 갖고 있는 각계 각층의 人士들이 올바른 교직관을 정립한다는 것은 敎育의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것이다.

## 3) 敎職觀의 類型

교직관은 일반적으로 크게 세 가지 類型으로 구분된다. 하나는 聖職觀이요, 두번째는 勞動職觀이며, 다른 하나는 專門職觀이다.<sup>10)</sup> 이들은 그 명칭이 시사하듯이 서로 다른 철학적 기초, 현실적 감각과 문제 인식을 가지고 있다.<sup>11)</sup> 각각의 유형마다 교원으로서 직무와 역할을 뚜렷하게 구분할 수 있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교직관의 각 유형에 따른 특성을 구분하여 의미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

8) 姜永三, “敎職專門性”, 서울特別市敎育委員會 編, 敎職과 師道 (서울特別市 敎育 委員會, 1983), p. 59.

9) 南億祐 外, 敎育大辭典 (서울:敎育科學社, 1991). p. 206.

10) 金鍾喆 外, 前掲書, p. 27.

11) 南億祐 外, 前掲書, p. 206.

### ① 聖職觀의 特性

성직관은 교직을 목사직이나 승려직과 같이 世俗的인 다른 직업과 구분하여 생각하는 견해이다. 교직이 주로 인간의 성격 형성을 돕고, 단순한 지식과 기술보다도 참다운 사람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던 전통적 교직관이다. 교직이 정신적 봉사활동으로서의 세속적인 것과는 거리가 먼 직업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많은 교직자 자신은 물론 사회 각계인사들이 바라는 바 였다.<sup>12)</sup> 이러한 교직관은 오늘날에 있어서는 사회 상황의 변천에 따라 교직자들에게 많은 의문점을 제시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상당히 광범위한 호응을 받고 있다.

교사가 어린이의 성장을 도움으로써 그의 잠재적 가능성을 개발하여 풍요한 생활을 영위하게 하고 이를 통하여 나라와 민족의 발전을 돕는 길이라는 신념을 가진다면 분명 그의 일은 노동의 영역을 뛰어 넘어 보람있는 聖職이 될 것이다.

金鳳守는 성직으로서의 敎師像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sup>13)</sup>

敎師는 스승으로서 젊은 세대와 彼敎育者의 人格傳導를 위하여 師道를 지켜야 하고 師魂을 가지고 萬人의 師表로서 自重自愛하는 생활을 하여야 하고, 윤리적, 도덕적 생활을 고귀하게 여기는 데에서 청빈의식을 가져야 한다.

결국, 성직관이 내포하는 개념을 종합해 보면, 첫째 교직은 인간의 영혼과 정신을 다루는 職種으로서 세속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고, 둘째 교직은 소명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직업이며, 세째 교직은 고매한 정신

12) 金鐘喆 外, 前掲書, p. 30.

13) 金鳳守, 前掲書, pp. 20-21.

적 봉사활동이다.

이러한 성직관의 관점에서는 오늘의 교원은 지나치게 세속화되고, 부분적으로 타락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성직자다운 자질과 자세를 회복할 것을 요구하게 된다.

## ② 勞働職觀의 特性

교직을 일반 직업과 같이 하나의 생계유지 수단에 불과한 노동으로 보는 교직관이다.<sup>14)</sup> 敎職도 본질적으로 다른 직업과 차이가 없는 노동직이며, 그것이 비록 정신적 노동을 위주로 한다지만 정신적 노동과 신체적 노동을 구분한다는 것은 도리어 부당하다는 견지에서 출발한다. 육체적 노동과 정신적 노동은 구분할 필요가 없이 노동을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을 유지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결국 교직도 노동직이며 본질적으로 다른 직업과 차이가 없다. 교직에 근무하는 노동의 對價로 처우개선, 근무환경의 개선과 향상 등을 위하여 노동단체를 조직하고 그 단체의 조직력을 통하여 집단적 행동으로 자기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려 한다. 노동직관에서는 노동자와 사용자·고용주가 상호 대립된 이익의 경쟁상대가 되기 쉬우며 노동자는 자기 이익과 목적을 쟁취하기 위하여 투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③ 專門職觀의 特性

專門職觀은 교직을 성직이나 노동직으로 보는 입장과는 달리 전문직으로 규정하려는 견해이다. 교직의 전문직관은 오늘날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고

---

14) 金鍾喆, “現代社會와 敎員”, 서울特別市敎育委員會編, 現代社會와 敎員 (서울特別市敎育委員會, 1982), p. 32.

있는데, 그것은 성직관, 노동직관의 辨證法的 통합이며, 그 장점을 통합하려는 입장이라 할 수 있다. 교직을 지성적, 정신적 활동을 위주로 하는 직업으로서 단순한 노동직이 아니고, 이기적인 활동도 아니며, 愛他的 動機에서 출발한 봉사활동으로 규정한다. 또 고도의 자율성과 윤리성을 강조한다. 이런 면에서는 성직관에 접근한다고 할 수 있다.<sup>15)</sup>

오늘날에 있어서는 교육의 전문화가 촉진되고 있는데 專門職觀에 있어서는 교원의 자질향상과 교권확립,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敎職團體를 구성하여 보다 적극적이며 진취적으로 교원의 권리신장과 지위향상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문직관의 입장에서 본 교사상의 개요를 살펴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sup>16)</sup>

첫째, 교원은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장기간에 걸쳐 교육과 훈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계속 연구하여야 한다. 둘째, 엄격한 자격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셋째, 고도의 자율성과 더불어 사회적 책임을 지녀야 하며 교원운리의 정립 및 敎權의 확립이 전개되어야 한다. 넷째, 전문직 단체를 통하여 자질, 지위의 향상 및 교육정책에의 참여를 보장받아야 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오늘날의 국민학교 교사의 교직관유형의 경향에 대하여 徐丙勛은 ① 국민학교 교사들은 교직이 전문직이길 기대하며, ② 교직이 현실적으로 전문직으로 대우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교사가 가장 많으며 성직으로 대우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교사가 그 다음으로 많고, ③ 교직관 정립에서 聖職性과

15) 上揭書, pp. 31-32.

16) 南億祐 外, 敎育學大辭典, 前揭書, pp. 207.

勞働性이 동시에 만족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하고 있다.<sup>17)</sup>

## 2. 敎職의 專門性

### 1) 敎職의 專門性

교직이 전문직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전문직의 특성을 규정하고 이러한 특성에 비추어 교직이 갖는 전문적인 특성을 찾아야 할 것이며, 이는 곧 교직이 전문직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특성을 지녀야 하는가를 밝히는 길이 되는 것이다.

전문직의 특성에 대하여 Liberman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sup>18)</sup>

- ① 전문직은 독특하고 한정된 종류의 사회적 봉사기능을 가지고 있다.
- ② 전문직은 그 직능 수행에 있어서 고도의 知的 技術을 필요로 한다.
- ③ 전문직은 장기간의 준비교육을 필요로 한다.
- ④ 전문직은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나 광범위한 자율권을 행사한다.
- ⑤ 전문직은 자율의 범위 안에서 행사한 행동과 판단에 대하여 종사자의 책임을 묻는다.
- ⑥ 전문직은 自律組織을 갖는다.
- ⑦ 전문직은 그 자체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준수해야 할 직업윤리를 가지고 있다.

한편, 美國의 N.E.A. 敎育政策委員會가 내린 전문직의 정의를 살펴보면

17) 徐丙勛, “초등교사의 교직관유형과 士氣에 관한 연구”(碩士學位論文, 國民大學校 敎育대학원, 1990).

18) M.Liberman, Education as a Profession(Prentice-Hall Inc., 1958), PP.1-6.

다음과 같은 엄격한 基準을 제시하고 있다.<sup>19)</sup>

- ① 전문직은 전문지식의 母體에 기초를 두고 있다.
- ② 전문직은 자격증을 요구한다.
- ③ 전문직은 가입요원들의 福祉와 전문적 성장을 위해 노력한다.
- ④ 전문직은 윤리강령이 있다.
- ⑤ 전문직은 집단 단결력이 있다.

이상에서 열거한 전문직의 특성을 종합해 보면 몇가지의 공통성을 찾아볼 수 있는 바, ① 고도의 전문적 지식 ② 장기간의 전문적 교육 ③ 사회적 봉사 기능 ④ 직무수행의 자율성 ⑤ 장기간의 前職 및 現職教育 ⑥ 전문적 단체의 구성 ⑦ 윤리강령 ⑧ 면허와 자격기준 ⑨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 등이다. 교직이 전문직이 되기 위해서는 상기의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고 본다.

한편 金宗西는 전문직의 여러 특성을 종합하고 그 공통성을 찾아 전문직으로서의 교직의 특성을 5가지로 요약하고 있는 데, ① 교직에는 고도의 知的能力이 필요하여 교직 수행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연구해야 한다. ② 교원이 되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準備教育이 필요하여 교원이 된 후에도 계속적인 自己 成長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교원은 奉仕指向的이어야 하며 사회적 책임이 강조 된다. ④ 교원은 자기들이 지켜야 할 윤리강령을 가지고 있다. ⑤ 교원은 자율성을 가지고 단체교섭 활동을 위한 자체적인 단체를 조직한다<sup>20)</sup> 등이다.

19) 박동준, 學校와 地域社會 (서울:東亞出版社, 1982), p.162.

20) 金宗西, “敎員의 專門性”, 서울特別市敎育委員會 編, 現代社會와 敎員 (서울:서울市敎育委員會, 1982), P.71.

또, 姜永三은 교직의 특수성으로 ① 교직은 개인과 사회에 봉사하는 직업적 수단으로서의 사회 기관인 점 ② 교직은 사회적 필요와 기능을 담당하는 점 ③ 교직은 축적된 지식과 행동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점 ④ 교사는 학생들을 위한 수업내용이나 방법을 결정할 때 가능한한 이론적 배경이 확실한 지식에 의거한다는 점 ⑤ 교사는 전문인을 중심으로 하는 組織體를 가지고 있다는 점 ⑥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오랜 준비교육이 필요한 점 ⑦ 교사는 높은 수준의 공신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 ⑧ 교직은 엄격한 敎員資格基準을 가지고 있다는 점 ⑨ 교사는 봉사정신이 투철하여 평생토록 전문적 능력을 발휘하는 점 ⑩ 교직은 자율성이 보장된다는 점을 들고, 이러한 점에서 교직도 전문성이 인정되지만 각 영역에서 미흡함을 발견할 수 있으므로 이의 보완을 통하여 전문직적 특성을 강화해야 한다<sup>21)</sup>고 강조하였다.

Dreeben은 교직이 전문성의 수행을 위해 가져야 할 기술은 ① 학습지도의 기술 ② 동기유발의 기술 ③ 학습집단의 통제에 관한 기술 ④ 학습집단 및 교수집단의 조직에 관한 기술 ⑤ 교육기재의 조작과 활용에 관한 기술이다<sup>22)</sup>라고 하였다.

또한, 鄭宇鉉도 교직의 전문성 提高를 위해 교직의 직무수행상 요구되는 이론과 기술은 다음 사항을 전제로 한 것이어야 한다고 하였다.<sup>23)</sup>

① 교사는 전문적인 지적능력이 있어야 한다.

② 교사는 全人的인 인격형성을 교육의 최대 목표로 삼아야 한다.

21) 姜永三, 前掲書, PP.148 - 150.

22) Rebert Dreeben, The nature of teaching (Scoff Foresman, 1970), p. 87.

23) 鄭宇鉉, 敎師論(서울:培英社, 1992), PP. 59 - 60.

③ 교사는 미래사회에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④ 교사는 부단히 교육의 革新思想을 익히고 학생의 장래에 도움이 된다면 이를 실천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은 설명을 토대로 우리 교직 현실을 보면 교직은 전문직이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도 전문직이라고 하기엔 부족한 면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교직의 전문성 저해요인은 교사 개인과 직접 관계되는 內的要因과 교사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 제도, 환경에 관계되는 外的要因으로 구분하여 생각할 수 있다. 교직의 전문성을 저해하는 내적요인으로는 교사의 正體危機, 무관심, 부정적 태도, 참여의식 부족 등을 들 수 있고, 외적요인으로는 행정가의 지도성 부족, 교원양성제도의 不備, 자격제도의 문제, 현직연수제도의 문제, 업무부담의 과중, 경제적 여건의 不適, 교육규모의 대형화, 관료적 분위기 등을 들 수 있다.<sup>24)</sup>

따라서, 교직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 姜永三은 ① 교원양성제도의 개선 ② 교원양성프로그램의 개선 ③ 현직교육의 강화 ④ 교원윤리의식의 강화 ⑤ 교원의 자기성장 ⑥ 교육여건의 개선 ⑦ 전문직으로서의 자유 보장 등을 제시하고 있다.<sup>25)</sup>

위에서 지적한 것들은 교직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교직에 종사하는 교원들이 전문직으로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마련해 주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24) 姜永三, 前掲書, p.153.

25) 上掲書, pp.158-163.

때문이다. 이러한 여건과 기초가 마련될 때 교육은 말은바 사명을 다할 수 있고 교사의 교육관 역시 바람직한 모습을 보여 줄 수 있을 것이다.

## 2) 바람직한 敎師像

바람직한 교사상이란 유능한 교사, 훌륭한 교사가 되는 조건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것이다. 이러한 교사상은 누구의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입장에서 본 교사의 자질로 다음과 같은 점을 들 수 있다.<sup>26)</sup>

- ① 올바른 교육관을 가진 사람
- ② 사람과 접촉을 즐기는 사람
- ③ 교육적 사명에 불타는 사람
- ④ 설명력, 분석력, 종합력을 가진 사람
- ⑤ 건전한 몸을 가진 사람
- ⑥ 사무를 즐기는 사람

또한 Hoyle은 훌륭한 교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내용을 숙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sup>27)</sup>

- ① 교사는 교실의 상황과 그 상황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
- ② 교사는 주어진 여러가지 상황에서 적절한 자기의 역할을 찾아낼 수 있

---

26) 南億祐 外, 敎育學大辭典, 前掲書, p.207.

27) E.Hoyle, The Role of the Teacher(London:Routlege & Kezan,1972), p.22.

어야 한다.

③ 교사는 변화된 상황에서 수시로 적응할 수 있는 개인적 특질과 기술이 있어야 한다.

또한, 李敦熙는 교사에게 요구되는 전문직적 자질로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하고 있다.<sup>28)</sup>

첫째, 아동 및 學生에 대한 포괄적 이해이다. 교사는 그들의 심리적·사회적 특성과 그들의 역사적·문화적 의미를 전문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아동·학생의 특성에 관한 이해는 교육의 出發點이며, 그들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은 교육적 방향 감각의 조건이다.

둘째, 교육내용에 관한 폭넓은 지식이다. 가르쳐지는 지식, 가치, 신념, 행동, 태도, 능력, 기능에 대한 다각적 이해가 필요하다. 이들이 학생의 생활 즉, 인생의 過程에서 주는 의미, 그리고 현재와 미래의 인간사회에서 가지게 될 가치의 평가를 교사는 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평가의 선택 및 결정과 조직의 능력이 요구된다. 교육은 價值企業이라고 말하듯 가치로운 것을 가르치고 배우게 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교육의 사회적 기능에 따르는 윤리의식이다. 교육은 문화의 전승이라는 文化保存的 기능을 하며 새로운 文化의 전개를 위한 문화개혁적 기능과 文化要素間의 異質性을 줄이고 갈등을 해소하는 문화통합적 기능을 한다. 그러므로 교사의 모든 행위는 사회적으로 위임된 것이며, 사명의 수행자로서의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져야 한다.

---

28) 李敦熙, “敎員의 敎職觀”, 敎育 第6號 (서울: 중앙교육연구원, 1976), pp. 100-103.

다섯째, 방법적 기술이다. 교사가 교육의 過程을 최종적으로 마무리짓는 결정적 순간의 기능을 다하는 데 요청되는 방법적 효율성은 높은 수준을 요한다.

한편, 교사로서의 바람직한 자질을 논함에 있어 간과해서는 안되는 것은 교사는 공지와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인격을 도야해나가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교사의 인격은 그 자체가 교육적 환경이며 교육적 가치체계이다. 교육이란 교사의 모든 인격이 노출됨으로 학생과의 인격적 상호작용을 통해 가치지향적인 인간형성을 촉진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진정한 교사는 부단히 자기 수양을 통해 스스로 인격을 연마하고 학생과 일체감을 조성해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sup>29)</sup>

이상에서 살펴본 바람직한 교사는 선천적으로 태어나는 수도 있으나 교사 자신의 부단한 노력과 좋은 교사양성제도에 의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것이며 그 중 일부는 교사가 가지는 교육의 본질에 대한 이해 또는 학교와 교사의 역할에 대한 이해에 따라 그 형태를 달리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現職의 교사들이 학교와 교사의 역할과 기능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가를 밝힐 수 있을 때 이에 대처하는 방안도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 3. 教師의 地位

教師의 地位란 교사의 담당 직무의 중요성 및 직무수행 능력에 대한 인식의 정도에 따라 그들에게 주어지는 社會的 待遇 또는 존경과, 다른 직업집

29) 現代社會研究所 編, 2000年代를 향한 韓國人像 (서울:現代社會研究所, 1982), p. 361.

단에 비교하여 본 교사의 근무조건, 보수 및 그 밖의 물질적 급여 등을 의미한다.<sup>30)</sup>

이러한 교원의 지위 중에서 가장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것은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지위이다. 양자는 敎職滿足度 결정의 중요 요인이며, 敎職誘引體制 強化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교사의 사회적 지위는 교직의 직업적 威信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러한 직업적 위신은 그 직업의 권위, 중요성 및 가치 등에 대한 사회적 평가의 산물이다. 따라서 어떤 직업의 사회적 지위는 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사회계층을 결정하는 중요한 하나의 요인이 되고 직업을 희망하는 사람에게는 강력한 誘引要因이 되는 것이다.<sup>31)</sup>

이와 같은 사회적 지위에 비하여 경제적 지위는 흔히 金錢的으로 받는 보수의 수준을 의미하는 것이 보통이다. 교사도 한 사람의 생활인이기 때문에 생활유지와 직무수행을 위해서 일정한 액수의 보수가 필요하다. 따라서 교원의 보수는 전문적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우대되어야 하며 社會保障의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교원의 지위와 신분보장은 교육목적을 실현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敎育法 第13條에는 「敎員의 社會的 地位는 적정하게 우대되어야 하며 그 신분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sup>32)</sup>고 명시되어 있고, 敎育公務員法 第34條에는 「敎育公務員의 報酬는 優待되어야 한

30) 鄭泰時, “敎員의 地位에 관한勸告”, 敎育評論(Vol.156, No.10, 1971), p.163.

31) 車京守, “敎職의 社會, 文化的 考察”,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편, 敎職과 師道(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1984), p. 51.

32) 韓國法制研究會, 文敎法典 (서울:育志社, 1982).

다」<sup>33)</sup>고 명시함으로써 교원의 사회적 및 경제적 지위 확보의 기초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裴鐘根은 현행 교원보수의 주요 문제점으로 ① 보수수준의 상대적 저하 ② 동등 학력 소지자의 차등 대우 ③ 승급기간의 장기화 ④ 사립학교 교원의 봉급 격차 등을 지적하면서, 이의 해소 방안으로 ① 교원 보수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② 敎壇敎師 優位의 보수체계로 개편하며 ③ 승급기간의 축소 및 승급액을 상향 조정하며 ④ 우수교원 확보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sup>34)</sup>

이러한 법률적 기초와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교원의 사회, 경제적 지위는 타전문직에 비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사의 사회적 지위를 낮게하는 요인으로 鄭宇鉉은 ① 適當 교과담당시간의 過多 ② 잡무의 과다 ③ 경제적 처우의 문제 ④ 社會人의 교육관 문제 등을 제시하고 있다.<sup>35)</sup>

한편, 교사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전략으로 ① 교권의 신장 ② 교사의 자율성 보장 ③ 전문적 자질 향상 ④ 근무조건 개선 ⑤ 윤리강령의 준수 ⑥ 교사상에 대한 새로운 인식 등이 강조되고 있다.<sup>36)</sup>

이러한 문제는 곧 교사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노력이 사회뿐만 아니라 교원 자신에게도 달려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모든 교원은 지위의 향상이 자신에게 달려 있음을 인식하고, 자기의 모든 직무에 있어서 가능한

33) 上揭書, (敎育公務員法 제34條).

34) 裴鐘根 外, 前揭書, pp. 291-292.

35) 鄭宇鉉, 前揭書, p. 14.

36) 裴鐘根 外, 敎育行政 敎育經營 (서울: 正民社, 1986), P. 290.

한 최고의 수준에 도달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교사의 지위 향상은 보수 문제의 해결만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고 교원복지의 개선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 교원의 복지후생은 연금, 자녀의 학비 및 주택 등에 있어서 미흡한 상태에 있다. 따라서 교원복지후생제도의 확충을 위해 추진되어야 할 주요 과제로는 ① 교원 자녀의 학비 감면 및 자녀 학비 보조수당 확대 ② 무주택 교원을 위한 장기저리의 주택 자금 융자 ③ 연금제도의 확충 등을 들 수 있다.<sup>37)</sup>

교원의 복지가 개선될 때 교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가 향상됨은 물론, 自己尊重의 기반이 튼튼해져 교육에 대한 사명감도 높아질 수 있는 것이다.<sup>38)</sup>

한편 오늘날의 교사의 지위에 대한 국민학교 교사의 견해를 살펴보면, 崔潛仁은 국민학교 교사들은 교직에 대한 사회적 지위가 점차 낮아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직업관에도 긍정적인 태도가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sup>39)</sup>

#### 4. 先行研究 考察

魏八萬은 '教師의 敎職觀에 관한 研究'에서 ① 교사의 대부분이 교직을 전문직으로 보고 있으며, ② 경력이 많을 수록 전문직의 긍지를 더 느끼고,

37) 金潤泰 外, 教師와 地域社會 (서울:배영사, 1984), p. 200.

38) 李榮德, "福祉社會 現實과 敎育", 한국교육학회편, 福祉社會와 敎育 (서울:培英社, 1980), p. 23.

39) 崔潛仁, "초등교사의 敎職觀과 價値觀에 관한 研究"(碩士學位論文, 關東대학교 敎育대학원, 1990).

③ 교직에 대한 상급 관청의 지시, 교장·교감의 행정적 간섭이 교사의 불만의 요소가 된다고 밝히고 있다.<sup>40)</sup>

車濬世는 ‘中等教師의 敎職觀에 관한 研究’에서 ① 교사의 대부분이 경제적, 사회적 대우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② 교사는 근무부담 중 잡무의 과중을 가장 어렵게 느끼고 있다. ③ 학교의 행정조직이 非民主的이다. ④ 투철한 사명감과 교직관을 가진 교사가 많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sup>41)</sup>

申述泳은 ‘中等教師의 敎職觀에 관한 研究’에서 ① 중등교사들은 교직의 안정성과 장래성에 회의적이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② 남교사와 교직경력이 적은 교사들의 不滿率이 높다. ③ 중등교사의 업무량이 많아 간소화가 필요하다. ④ 학교운영이 학교장 독단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sup>42)</sup>

朴雨贊은 ‘초등교사와 중등교사의 교직관 비교 연구’에서 ① 교사의 50% 정도가 교직을 전문직으로 인식하고 있다. ② 교사의 업무량이 많다. ③ 교직생활의 어려움은 잡무 과중과 상급자와의 인간관계 등이라고 밝혔다.<sup>43)</sup>

吳賢淑은 ‘교사의 교직관 및 가치관에 관한 연구’에서 교사들은 ① 교직의 장래성 및 경제성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② 교사의 사회적 지위를 부정적으로 본다. ③ 교직에 만족하는 교사는 30%에 불과하다. ④ 경제

---

40) 魏八萬, “教師의 敎職觀에 관한 研究”(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1987).

41) 車濬世, “中等教師의 敎職觀에 관한 研究”(碩士學位論文, 仁何大學校 教育대학원, 1980).

42) 申述泳, “中等教師의 敎職觀에 관한 研究”(碩士學位論文, 延世大學校 教育대학원, 1987).

43) 朴雨贊, “初等教師와 中等教師의 敎職觀 比較 研究”(碩士學位論文, 檀國大學校 教育대학원, 1985).

적 문제, 잡무, 인사 문제 등에 불만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sup>44)</sup>

尹鉞重은 '중등교사의 교직관과 職務滿足度와의 관계에 관한 研究'에서 ① 중등교사는 성직관이나 노동직관에 비하여 전문직관이 가장 많았다. ② 교직관은 직무수행에 영향을 끼친다. ③ 노동직관을 지닌 교사가 직무만족도에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고 밝혔다.<sup>45)</sup>

趙光男은 '국민학교 교사의 교직관과 자율성 인식에 관한 연구'에서 교사들은 처우개선과 사회적 지위향상에 강한 욕구성향을 나타냈고, 다음으로 자율성 보장과 교육환경개선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국민학교 敎職候補者의 선발단계와 교사양성 과정에서 적성과 소질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sup>46)</sup>

徐丙勛은 '초등교사의 교직관유형과 士氣에 관한 연구'에서 초등교사는 대부분 교직이 전문직이길 기대하고 있고, 이러한 교사일 수록 사기가 높다고 밝혔다. 또한, 전체 교원의 사기는 보통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이며, 사기에 지배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지위의 확보이며 이를 뒷받침하는 것은 교사 자신의 가치관임을 강조하고 있다.<sup>47)</sup>

---

44) 吳賢淑, “敎師의 敎職觀 및 價値觀에 관한 研究”(碩士學位論文, 延世大學校 敎育대학원, 1983).

45) 尹鉞重, “中等敎師의 敎職觀과 職務滿足度와의 관계에 관한 研究”(碩士學位論文, 建國大學校 敎育대학원, 1986).

46) 趙光男, “國民學校 敎師의 敎職觀과 自律性 認識에 관한 研究”(碩士學位論文, 延世大學校 敎育대학원, 1989).

47) 徐丙勛, 前掲書.

### Ⅲ. 研究의 問題

이상의 이론적 배경에서 고찰한 교직원 및 교직관의 유형, 교직의 전문성, 교사 사회·경제적 지위, 선행연구 고찰 등에 관한 여러 이론들을 근거로 국민학교 교사들이 지각한 교직관유형(聖職觀, 專門職觀, 勞動職觀)은 그들의 배경변인에 따라 어떻게 다르며, 교직전문성과 교사의 지위는 그들의 배경변인과 교직관유형에 따라서 어떻게 다른가를 밝히고자 다음과 같은 問題를 설정하였다.

〈問題 I〉 국민학교 교사가 지각한 敎職觀類型(성직관, 전문직관, 노동직관)은 그들의 배경변인에 따라서 어떠한 差異가 있는가?

〈問題 II〉 국민학교 교사가 지각한 敎職專門性은 그들의 배경변인(性別, 年齡)에 따라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問題 III〉 국민학교 교사가 지각한 교직전문성은 그들의 교직관유형에 따라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問題 IV〉 국민학교 교사가 지각한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그들의 배경변인(성별, 연령)에 따라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問題 V〉 국민학교 교사가 지각한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그들의 교직관유형에 따라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Ⅳ. 研究의 方法

### 1. 研究의 對象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에 있는 국민학교에 在職中인 교사 34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표집대상 학교로는 지역을 고려하여 11개교를 선정하였다. 배부한 질문지 340매 중 302 매가 회수되었으며, 이 중 부실한 응답을 보인 35매를 제외한 277매를 자료로 사용하였다.

〈表-1〉 질문지 배부 및 회수 현황

| 구 분 | 학 교 수 | 배 부 수 | 회 수 수 | 회 수 율 |
|-----|-------|-------|-------|-------|
| 東 部 | 1     | 30    | 27    | 90.0% |
| 西 部 | 1     | 30    | 28    | 93.3% |
| 南 部 | 1     | 40    | 35    | 87.5% |
| 北 部 | 2     | 70    | 64    | 91.4% |
| 中 部 | 1     | 25    | 22    | 88.0% |
| 江 東 | 1     | 30    | 25    | 83.3% |
| 江 西 | 1     | 30    | 27    | 90.0% |
| 江 南 | 2     | 60    | 53    | 88.3% |
| 銅 雀 | 1     | 25    | 21    | 84.0% |
| 합 계 | 11    | 340   | 302   | 88.8% |

### 2. 檢査의 道具

본 연구를 위하여 사용한 검사도구는 국민학교 교사의 교직관을 분석하기

위하여 理論的 背景을 기초로 하여, 高成男의 “국민학교 교사의 교직관과 헌신도에 관한 연구”<sup>48)</sup> 와 高弼坤의 “교사의 교직관에 관한 연구”<sup>49)</sup>의 두 연구의 질문지를 참고로 하여 본 연구자가 작성하였다.

사용된 질문지의 問項構成內容은 다음의 <表-2>와 같다.

<表-2> 교직관 분석을 위한 질문지 문항구성표

| 영역        |      | 문항수 | 문항번호    |
|-----------|------|-----|---------|
| 교직관<br>유형 | 성직관  | 3   | 1, 4, 7 |
|           | 전문직관 | 3   | 2, 5, 8 |
|           | 노동직관 | 3   | 3, 6, 9 |
| 교직전문성     |      | 6   | 10 ~ 15 |
| 교사의 지위    |      | 5   | 16 ~ 20 |

### 3. 資料의 處理

자료의 처리에 있어서는 集團間的 差異를 검증하기 위하여 SPSS/PC+(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IBM PC Plus) program에 의한  $X^2$ (Chi-square)檢證方法과 變量分析(ANOVA)을 사용하였다.

48) 高成男, “국민학교 교사의 교직관과 헌신도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1990).

49) 高弼坤, “교사의 교직관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1985).

## V. 研究 結果 및 解釋

### 1. 국민학교 교사의 敎職觀類型

#### 1) 교직원 유형별 분포상황

전체 교사집단의 교직원유형별 반응의 결과 다음의 <表-3>과 같다.

<表-3> 국민학교 교사집단의 교직원유형별 분포상황 ( )%

| 구 분 |   | 성직관    | 전문직관   | 노동직관   | 계       |
|-----|---|--------|--------|--------|---------|
| 인원수 | N | 8      | 255    | 14     | 277     |
| 백분율 | % | ( 2.9) | (92.1) | ( 5.0) | (100.0) |

<表-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민학교 교사들의 교직원에 대한 반응은 전문직관이 92.1%로 가장 많았으며, 노동직관이 5.0%, 성직관이 2.9%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교사들이 교직에 대해 전문직관의 견해를 보이고 있으며 성직관과 노동직관에 대한 견해는 소수에 불과하다. 이는 대부분의 국민학교 교사들이 전문직관의 입장에서 교직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 2) 性別에 따른 敎職觀類型 比較

성별에 따른 국민학교 교사들의 교직원유형 결과는 다음의 <表-4>와 같다.

〈表-4〉 성별에 따른 교직원유형비교 ( )%

| 性 別 |        | 성직관         | 전문직관          | 노동직관         | 計            |
|-----|--------|-------------|---------------|--------------|--------------|
| 남자  | N<br>% | 5<br>( 5.4) | 83<br>(89.2)  | 5<br>( 5.4)  | 93<br>(100)  |
| 여자  | N<br>% | 3<br>( 1.6) | 172<br>(93.5) | 9<br>( 4.9)  | 184<br>(100) |
| 합계  | N<br>% | 8<br>( 2.9) | 255<br>(92.1) | 14<br>( 5.1) | 277<br>(100) |

$$X^2=3.150 \quad df=2 \quad p > 0.05$$

〈表-4〉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제로 얻어진  $X^2$ 의 값이 3.150이므로 이는  $P=0.05$  수준에서 요구되는 값 5.991보다 작게 나타났으므로 敎職觀類型에 대한 남녀별 두 집단간의 반응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 3) 연령에 따른 교직원 비교

국민학교 교사가 지각한 교직원유형의 연령별 반응의 결과는 다음의 〈表-5〉와 같다.

〈表-5〉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제로 얻어진  $X^2$ 의 값이 21.832이므로 이는  $P=0.01$  水準에서 요구되는 값 16.812보다 크게 나타났으므로 敎職의 專門性에 대한 연령이 다른 네 집단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노동직관의 경우 40대 교사와 50대 교사는 각각 1.2%, 2.0%인 반면, 30대 교사는 10.0%로 반응하여 30대

〈表-5〉 연령에 따른 교직원유형 비교 ( )%

| 연 령 |        | 성직관         | 전문직관          | 노동직관         | 계            |
|-----|--------|-------------|---------------|--------------|--------------|
| 20대 | N<br>% | 0<br>( 0.0) | 49<br>(94.2)  | 3<br>( 5.8)  | 52<br>(100)  |
| 30대 | N<br>% | 3<br>( 3.3) | 78<br>( 86.7) | 9<br>(10.0)  | 90<br>(100)  |
| 40대 | N<br>% | 0<br>( 0.0) | 85<br>(98.8)  | 1<br>( 1.2)  | 86<br>(100)  |
| 50대 | N<br>% | 5<br>(10.2) | 43<br>(87.8)  | 1<br>( 2.0)  | 49<br>(100)  |
| 합계  | N<br>% | 8<br>( 2.9) | 255<br>(92.1) | 14<br>( 5.1) | 277<br>(100) |

$$X^2=21.832 \quad df= 6 \quad p < 0.01$$

교사가 다른 교사집단보다 노동직관의 경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성직관의 경우 20대 교사와 40대 교사가 0%인 반면, 50대 교사는 10.2%로 반응을 보여 50대 교사가 그 외의 교사들보다 성직관으로 지각하는 정도가 높다고 할 수 있겠다.

#### 4) 學力에 따른 敎職觀類型 比較

국민학교 교사의 學力에 따른 교직원유형에 대한 반응결과는 다음의 〈表-6〉과 같다.

〈表-6〉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제로 얻어진  $X^2$ 의 값이 6.955이므로 이는  $P=0.05$  수준에서 요구되는 값 12.592보다 훨씬 작게 나타났으므로 교직원유

〈표-6〉 학력별 교직원유형 비교 ( )%

| 구 분       |        | 성직관         | 전문직관          | 노동직관         | 계             |
|-----------|--------|-------------|---------------|--------------|---------------|
| 고졸        | N<br>% | 3<br>( 9.4) | 28<br>(87.5)  | 1<br>( 3.1)  | 32<br>(100)   |
| 2年制<br>대졸 | N<br>% | 2<br>( 2.6) | 71<br>(93.4)  | 3<br>( 3.9)  | 76<br>(100)   |
| 4年制<br>대졸 | N<br>% | 2<br>( 1.4) | 128<br>(92.1) | 9<br>( 6.5)  | 139<br>(50.2) |
| 대학원졸      | N<br>% | 1<br>( 3.3) | 28<br>(93.3)  | 1<br>( 3.3)  | 30<br>(10.8)  |
| 합계        | N<br>% | 8<br>( 2.9) | 255<br>(92.1) | 14<br>( 5.1) | 277<br>(100)  |

$$X^2=6.955 \quad df= 6 \quad P >0.05$$

형에 대한 학력이 다른 네 집단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 5) 補職別 敎職觀類型 比較

국민학교 교사의 보직에 따른 교직원유형에 대한 반응은 〈表-7〉과 같다.

〈表-7〉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제로 얻어진  $X^2$ 의 값이 3.399이므로 이는  $P=0.05$  水準에서 要求되는 값 5.991보다 작게 나타났으므로 교직원유형에 대한 반응에는 主任敎師와 一般敎師 두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表-7〉 보직별 교직원유형 비교 ( )%

| 補 職  |        | 성직관          | 전문직관          | 노동직관          | 계            |
|------|--------|--------------|---------------|---------------|--------------|
| 主任教師 | N<br>% | 2<br>( 4.1 ) | 47<br>(95.9)  | 0<br>( 0.0 )  | 49<br>(100)  |
| 一般教師 | N<br>% | 6<br>( 2.6 ) | 208<br>(91.2) | 14<br>( 6.2 ) | 228<br>(100) |
| 합계   | N<br>% | 8<br>( 2.9 ) | 255<br>(92.1) | 14<br>( 5.1 ) | 277<br>(100) |

$$X^2 = 3.399 \quad df= 2 \quad P > 0.05$$

## 2. 敎職의 專門性

敎職의 專門性에 대한 교사의 의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교직을 높은 學力과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전문직이라고 생각하는가? 또, 교사양성제도와 현직연수가 교직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한다고 보는가? 그리고, 전문직의 특성인 자율성은 부여되고 있다고 인식하는가? 등의 설문을 제시하고 반응하도록 하였다.

### 1) 敎職專門性

敎師가 專門職으로서의 敎職意識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기 위한 설문 즉, 『교직은 높은 학력과 지식이 요구되는 전문직이라고 생각한다』에 대한 반응결과는 〈表- 8〉과 같다.

〈表-8〉 교직의 전문성에 대한 교사의 반응

N=277

| 구분<br>반응           | 全體<br>N<br>( % )      | 性 別                                          |               | 年 齡 別                                         |              |              |              |
|--------------------|-----------------------|----------------------------------------------|---------------|-----------------------------------------------|--------------|--------------|--------------|
|                    |                       | 男                                            | 女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 전혀 그렇지 않다<br>( 1 ) | 0<br>( 0.0 )          | 0<br>( 0.0 )                                 | 0<br>( 0.0 )  | 0<br>( 0.0 )                                  | 0<br>( 0.0 ) | 0<br>( 0.0 ) | 0<br>( 0.0 ) |
| 별로 그렇지 않다<br>( 2 ) | 0<br>( 0.0 )          | 0<br>( 0.0 )                                 | 0<br>( 0.0 )  | 0<br>( 0.0 )                                  | 0<br>( 0.0 ) | 0<br>( 0.0 ) | 0<br>( 0.0 ) |
| 보 통 이 다<br>( 3 )   | 3<br>( 1.1 )          | 1<br>( 1.0 )                                 | 2<br>( 1.1 )  | 1<br>( 1.7 )                                  | 2<br>( 2.3 ) | 0<br>( 0.0 ) | 0<br>( 0.0 ) |
| 약 간 그 령 다<br>( 4 ) | 92<br>(33.2)          | 32<br>(32.0)                                 | 60<br>(33.9)  | 15<br>(25.0)                                  | 38<br>(44.2) | 25<br>(32.1) | 14<br>(26.4) |
| 아 주 그 령 다<br>( 5 ) | 182<br>(65.7)         | 67<br>(67.0)                                 | 115<br>(65.0) | 44<br>(73.3)                                  | 46<br>(53.5) | 53<br>(67.9) | 39<br>(73.6) |
|                    | M=4.65<br>SD=<br>0.01 | X <sup>2</sup> = 0.119<br>df = 2<br>p > 0.05 |               | X <sup>2</sup> = 10.984<br>df = 6<br>p > 0.05 |              |              |              |

① 남녀별 반응: 〈表-8〉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제로 얻어진 X<sup>2</sup>의 값이 0.119이므로 이는 P=0.05 水準에서 요구되는 값 5.991보다 훨씬 작게 나타났다으므로 敎職의 專門性에 대한 남녀교사 두 집단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② 연령별 반응: 〈表-8〉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제로 얻어진 X<sup>2</sup>의 값이 10.984이므로 이는 P=0.05 水準에서 요구되는 값 12.592보다 작게 나타났으므로 교직의 전문성에 대한 年齡別 각 집단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적인 교사의 반응을 살펴보면은 <表-8>에서 알 수 있듯이 ‘아주 그렇다’가 65.7%, ‘약간 그렇다’가 33.2%, ‘보통이다’가 1.1%로 나타났다( $M=4.65$ ,  $SD=0.01$ ). 따라서 98.9%의 비율로 국민학교 교사는 성별, 연령에 관계없이 교직을 높은 학력과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專門職이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 2) 教師養成制度의 敎職 專門性 寄與度

교사양성제도의 교직 전문성 기여도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 『교사양성제도는 전문성을 높일 만큼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한다』에 대한 반응결과는 <表-9>와 같다.

① 남녀별 반응: <表-9>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제로 얻어진  $X^2$ 의 값이 2.788이므로 이는  $P=0.05$  수준에서 요구되는 값 9.488보다 훨씬 작게 나타났다으므로 교사양성제도의 교직 전문성에 대한 두 집단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② 연령별 반응: <表-9>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제로 얻어진  $X^2$ 의 값이 33.503이므로 이는  $P=0.001$  수준에서 요구되는 값 32.909보다 크게 나타났으므로 교사양성제도의 교직 전문성 기여도에 대한 연령별 각 집단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에 반응한 20대 교사는 63.3%, 30대 교사는 65.1%, 40대 교사는 35.9%, 50대 교사는 47.7%로 반응하였다. 따라서 30대 이하의 교사집단이 40대 이상의 교사집단에 비해 교사양성제도의 교직 전문성 寄與度에 더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음이 나타나고 있다.

〈표-9〉 교사양성제도의 교직 전문성 기여도

N=277

| 구분<br>반응           | 全體<br>N<br>( % )  | 性 別                                          |               | 年 齡 別                                           |              |              |              |
|--------------------|-------------------|----------------------------------------------|---------------|-------------------------------------------------|--------------|--------------|--------------|
|                    |                   | 男                                            | 女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 전혀 그렇지 않다<br>( 1 ) | 27<br>( 9.7 )     | 12<br>(12.0)                                 | 15<br>( 8.5 ) | 9<br>(15.0)                                     | 11<br>(12.8) | 6<br>( 7.7 ) | 1<br>( 1.9 ) |
| 별로 그렇지 않다<br>( 2 ) | 115<br>(41.5)     | 42<br>(42.0)                                 | 73<br>(41.2)  | 29<br>(48.3)                                    | 45<br>(52.3) | 22<br>(28.2) | 19<br>(35.8) |
| 보 통 이 다<br>( 3 )   | 94<br>(33.9)      | 29<br>(29.0)                                 | 65<br>(36.7)  | 14<br>(23.3)                                    | 22<br>(25.6) | 35<br>(44.9) | 23<br>(43.4) |
| 약 간 그 령 다<br>( 4 ) | 32<br>(11.6)      | 14<br>(14.0)                                 | 18<br>(10.2)  | 3<br>( 5.0 )                                    | 7<br>( 8.1 ) | 13<br>(16.7) | 9<br>(17.0)  |
| 아 주 그 령 다<br>( 5 ) | 9<br>( 3.2 )      | 3<br>( 3.0 )                                 | 6<br>( 3.4 )  | 5<br>( 8.3 )                                    | 1<br>( 1.2 ) | 2<br>( 2.6 ) | 1<br>( 1.9 ) |
|                    | M=2.57<br>SD=0.93 | X <sup>2</sup> = 2.788<br>df = 4<br>p > 0.05 |               | X <sup>2</sup> = 33.503<br>df = 12<br>p < 0.001 |              |              |              |

전체적인 반응은 〈表-9〉에서 알수 있듯이 ‘그렇지 않다’가 51.2%, ‘보통이다’가 33.9%, ‘그렇다’가 14.8%로 나타났다( M=2.57, SD=0.93). 따라서 반 수 정도의 국민학교 교사가 국민학교 교사양성기관의 교육이 교직전문성을 높이는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 3) 現職研修의 敎職專門性 寄與度

現職에서 실시되는 각종 研修의 교직전문성 기여도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 『현직에서 실시되는 각종 연수는 전문성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에 대한 반응결과는 〈表-10〉과 같다.

〈表-10〉 현직연수의 교직전문성 기여도에 대한 반응 N=277

| 구분<br>반응           | 全體<br>N<br>( % )      | 性 別                                          |               | 年 齡 別                                          |              |              |              |
|--------------------|-----------------------|----------------------------------------------|---------------|------------------------------------------------|--------------|--------------|--------------|
|                    |                       | 男                                            | 女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 전혀 그렇지 않다<br>( 1 ) | 20<br>( 7.2 )         | 5<br>( 5.0 )                                 | 15<br>( 8.5 ) | 8<br>(13.3)                                    | 9<br>(10.5)  | 2<br>( 2.6 ) | 1<br>( 1.9 ) |
| 별로 그렇지 않다<br>( 2 ) | 115<br>(41.5)         | 38<br>(38.0)                                 | 77<br>(43.5)  | 27<br>(45.0)                                   | 46<br>(53.5) | 28<br>(35.9) | 14<br>(26.4) |
| 보 통 이 다<br>( 3 )   | 105<br>(37.9)         | 41<br>(41.0)                                 | 64<br>(36.2)  | 16<br>(26.7)                                   | 26<br>(30.2) | 33<br>(42.3) | 30<br>(56.6) |
| 약 간 그 령 다<br>( 4 ) | 35<br>(12.6)          | 15<br>(15.0)                                 | 20<br>(11.3)  | 8<br>(13.3)                                    | 5<br>( 5.8 ) | 14<br>(17.9) | 8<br>(15.1)  |
| 아 주 그 령 다<br>( 5 ) | 2<br>( 0.7 )          | 1<br>( 1.0 )                                 | 1<br>( 0.6 )  | 1<br>( 1.7 )                                   | 0<br>( 0.0 ) | 1<br>( 1.3 ) | 0<br>( 0.0 ) |
|                    | M=2.58<br>SD=<br>0.83 | X <sup>2</sup> = 2.789<br>df = 4<br>p > 0.05 |               | X <sup>2</sup> = 31.331<br>df = 12<br>p < 0.01 |              |              |              |

① 남녀별 반응: 〈表-10〉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제로 얻어진 X<sup>2</sup>의 값이 2.789이므로 이는 P=0.05 수준에서 요구되는 값 9.488보다 작게 나타났으므로 현직연수의 교직전문성에 대한 남녀교사 두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② 연령별 반응: 〈表-10〉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제로 얻어진 X<sup>2</sup>의 값이 31.331이므로 이는 P=0.01 수준에서 요구되는 값 26.217보다 크게 나타났으므로 현직연수의 교직 전문성 기여도에 대한 연령별 각 집단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에 반응한 20대 교사는 58.3%, 30대 교사는 64.0%,

40대 교사는 38.5%, 50대 교사는 28.3%로 반응하였다. 따라서 30대 이하의 교사집단이 40대 이상의 교사집단에 비해 현직연수의 교직전문성 기여도에 더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음이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인 반응은 <表-10>에서 알 수 있듯이 '그렇지 않다'가 48.7%, '보통이다'가 37.9%, '그렇다'가 13.3%로 나타났다(  $M=2.58$ ,  $SD=0.83$ ). 따라서 반 수 정도의 국민학교 교사가 현직에서 실시되는 각종 연수가 敎職專門性 향상에 기여함이 적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곧 현직연수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현직연수가 전문성을 추구하는 교사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 충분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다고 보겠다. 현행의 현직연수는 研修敎育課程은 물론 연수의 기회면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재정적 지원의 부족으로 형식화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고 짐작된다. 따라서 연수과정을 체계적으로 전문화하고 기타 재정적인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現職研修가 敎職專門性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와 관심이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 4) 大學院 敎育의 敎職專門性 寄與度

대학원 교육의 교직전문성 기여도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 『국민학교 교사도 전문성 향상을 위해 대학원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에 대한 반응결과는 <表-11>과 같다.

① 남녀별 반응: <表-11>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제로 얻어진  $X^2$ 의 값이 12.150이므로 이는  $P=0.05$  수준에서 요구되는 값 9.488보다 크게 나타났으므로 대학원 교육의 교직전문성에 대한 남녀교사두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表-11> 대학원 교육의 교직전문성 기여도에 대한 반응

N=277

| 구분<br>반응           | 全體<br>N<br>( % )      | 性 別                                           |              | 年 齡 別                                          |              |              |              |
|--------------------|-----------------------|-----------------------------------------------|--------------|------------------------------------------------|--------------|--------------|--------------|
|                    |                       | 男                                             | 女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 전혀 그렇지 않다<br>( 1 ) | 2<br>( 0.7 )          | 2<br>( 2.0 )                                  | 0<br>( 0.0 ) | 0<br>( 0.0 )                                   | 0<br>( 0.0 ) | 2<br>( 2.6 ) | 0<br>( 0.0 ) |
| 별로 그렇지 않다<br>( 2 ) | 45<br>(16.2)          | 10<br>(10.0)                                  | 35<br>(19.8) | 6<br>(10.0)                                    | 9<br>(10.5)  | 18<br>(23.1) | 12<br>(22.6) |
| 보 통 이 다<br>( 3 )   | 65<br>(23.5)          | 18<br>(18.0)                                  | 47<br>(26.6) | 9<br>(15.0)                                    | 22<br>(25.6) | 22<br>(28.2) | 12<br>(22.6) |
| 약 간 그 령 다<br>( 4 ) | 118<br>(42.6)         | 50<br>(50.0)                                  | 68<br>(38.4) | 27<br>(45.0)                                   | 42<br>(48.8) | 29<br>(37.2) | 20<br>(37.7) |
| 아 주 그 령 다<br>( 5 ) | 47<br>(17.0)          | 20<br>(20.0)                                  | 27<br>(15.3) | 18<br>(30.0)                                   | 13<br>(15.1) | 7<br>( 9.0 ) | 9<br>(17.0)  |
|                    | M=3.59<br>SD=<br>0.97 | X <sup>2</sup> = 12.150<br>df = 4<br>p < 0.05 |              | X <sup>2</sup> = 25.461<br>df = 12<br>p < 0.05 |              |              |              |

유의한 차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 교사 집단은 '그렇지 않다'에 12.0%, '보통이다'에 18.0%, '그렇다'에 70.0%로 반응하였고, 여교사 집단은 '그렇지 않다'에 19.8%, '보통이다'에 26.6%, '그렇다'에 53.7%로 반응하였다. 따라서 대학원 교육이 교직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에 남교사가 여교사보다 더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② 연령별 반응: <表-11>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제로 얻어진 X<sup>2</sup>의 값이 25.461이므로 이는 P=0.05 수준에서 요구되는 값 21.026보다 크게 나타났으

므로 대학원 교육의 교직전문성 기여도에 대한 연령별 각 집단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에 반응한 20대 교사는 10.0%, 30대 교사는 10.5%, 40대 교사는 25.7%, 50대 교사는 22.6%로 반응하였고, ‘그렇다’에 반응한 20대 교사는 75.0%, 30대 교사는 63.9%, 40대 교사는 46.2%, 50대 교사는 54.7%로 반응하였다. 따라서 연령이 높은 교사집단이 연령이 낮은 교사집단에 비해 대학원 교육의 교직전문성 기여도에 더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음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年齡的 制限性으로 인하여 대학원 수강의 의사가 적기 때문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

전체인 반응을 살펴보면 <表-11>에서 알 수 있듯이 ‘그렇지 않다’가 16.9%, ‘보통이다’가 23.5%, ‘그렇다’가 59.6%로 나타났다 (  $M=3.59$ ,  $SD=0.97$ ). 따라서 반 수 정도의 국민학교 교사가 대학원 교육이 敎職專門性 向上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5) 敎職의 自律性

교사들이 학생을 가르침에 있어서 전문직으로서의 자율성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아보기 위한 설문 『교직은 나의 신념이나 뜻에 맞게 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 자율성이 많이 부여되고 있다』에 대한 반응결과는 <표-12>와 같다.

① 남녀별 반응: <表-12>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제로 얻어진  $X^2$ 의 값이 3.747이므로 이는  $P=0.05$  수준에서 요구되는 값 9.488보다 작게 나타났으므로 교직의 자율성에 대한 남녀교사 두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表-12〉 교직의 자율성에 대한 반응

N=277

| 구분<br>반응           | 全體<br>N<br>( % )   | 性 別                                          |               | 年 齡 別                                           |              |              |              |
|--------------------|--------------------|----------------------------------------------|---------------|-------------------------------------------------|--------------|--------------|--------------|
|                    |                    | 男                                            | 女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 전혀 그렇지 않다<br>( 1 ) | 14<br>( 5.1 )      | 6<br>( 6.0 )                                 | 8<br>( 4.5 )  | 5<br>( 8.3 )                                    | 5<br>( 5.8 ) | 3<br>( 3.8 ) | 1<br>( 1.9 ) |
| 별로 그렇지 않다<br>( 2 ) | 64<br>(23.1)       | 29<br>(29.0)                                 | 35<br>(19.8)  | 21<br>(35.0)                                    | 24<br>(27.9) | 12<br>(15.4) | 7<br>(13.2)  |
| 보 통 이 다<br>( 3 )   | 89<br>(32.1)       | 29<br>(29.0)                                 | 60<br>(33.9)  | 18<br>(30.0)                                    | 37<br>(43.0) | 21<br>(26.9) | 13<br>(24.5) |
| 약 간 그 령 다<br>( 4 ) | 93<br>(33.6)       | 31<br>(31.0)                                 | 62<br>(35.0)  | 14<br>(23.3)                                    | 17<br>(19.8) | 38<br>(48.7) | 24<br>(45.3) |
| 아 주 그 령 다<br>( 5 ) | 17<br>( 6.1 )      | 5<br>( 5.0 )                                 | 12<br>( 6.8 ) | 2<br>( 3.3 )                                    | 3<br>( 3.5 ) | 4<br>( 5.1 ) | 8<br>(15.1)  |
|                    | M=3.13<br>SD= 0.99 | X <sup>2</sup> = 3.747<br>df = 4<br>p > 0.05 |               | X <sup>2</sup> = 39.375<br>df = 12<br>p < 0.001 |              |              |              |

② 연령별 반응: 〈表-12〉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제로 얻어진 X<sup>2</sup>의 값이 39.375이므로 이는 P=0.001 수준에서 요구되는 값 32.909보다 크게 나타났으므로 교직의 자율성에 대한 연령별 각 집단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에 반응한 20대 교사는 43.3%, 30대 교사는 33.7%, 40대 교사는 19.2%, 50대 교사는 15.1%로 반응하였고, ‘그렇다’에 반응한 20대 교사는 26.6%, 30대 교사는 23.3%, 40대 교사는 53.8%, 50대 교사는 60.4%로 반응하였다. 따라서 연령이 많은 교사일수록 교직사회에 자율성이 많이 부여되

고 있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전체적인 반응을 살펴보면 <表-12>에서 알 수 있듯이 '그렇지 않다'가 28.2%, '보통이다'가 32.1%, '그렇다'가 39.7%로 나타났다. (M=3.13, SD=0.99).

#### 6) 국민학교 교사들의 研究活動

국민학교 교사들이 교육현장에서 그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어느 정도 연구활동에 노력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설문, 『나는 교재연구 및 연구활동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에 대한 반응결과는 <表-13>과 같다.

① 남녀별 반응: <表-13>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제로 얻어진  $X^2$ 의 값이 13.806이므로 이는  $P=0.01$  수준에서 요구되는 값 13.277보다 약간 크게 나타났다으므로 남녀교사 두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교사집단은 '그렇지 않다'에 10.0%, '보통이다'에 46.0%, '그렇다'에 44.0%로 반응하였고, 여교사 집단은 '그렇지 않다'에 15.3%, '보통이다'에 55.9%, '그렇다'에 28.8%로 반응하였다. 따라서 남교사가 여교사보다 교재연구 및 연구활동에 많은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② 연령별 반응: <表-13>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제로 얻어진  $X^2$ 의 값이 26.771이므로 이는  $P=0.01$  수준에서 요구되는 값 26.217보다 크게 나타났으므로 연령별 각 집단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에 반응한 20대 교사는 15.0%, 30대 교사는 18.6%, 40대 교사는 10.3%, 50대 교사는 7.5%로

〈表-13〉 국민학교 교사의 연구활동에 대한 반응

N=277

| 구분<br>반응           | 全體<br>N<br>( % )  | 性 別                                           |              | 年 齡 別                                          |              |              |              |
|--------------------|-------------------|-----------------------------------------------|--------------|------------------------------------------------|--------------|--------------|--------------|
|                    |                   | 男                                             | 女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 전혀 그렇지 않다<br>( 1 ) | 2<br>( 0.7 )      | 1<br>( 1.0 )                                  | 1<br>( 0.6 ) | 2<br>( 3.3 )                                   | 0<br>( 0.0 ) | 0<br>( 0.0 ) | 0<br>( 0.0 ) |
| 별로 그렇지 않다<br>( 2 ) | 35<br>(21.6)      | 9<br>( 9.0 )                                  | 26<br>(14.7) | 7<br>(11.7)                                    | 16<br>(18.6) | 8<br>(10.3)  | 4<br>( 7.5 ) |
| 보 통 이 다<br>( 3 )   | 145<br>(52.3)     | 46<br>(46.0)                                  | 99<br>(55.9) | 27<br>(45.0)                                   | 48<br>(55.8) | 45<br>(57.7) | 25<br>(47.2) |
| 약 간 그 령 다<br>( 4 ) | 87<br>(31.4)      | 37<br>(37.0)                                  | 50<br>(28.2) | 22<br>(36.7)                                   | 22<br>(25.6) | 24<br>(30.8) | 19<br>(35.8) |
| 아 주 그 령 다<br>( 5 ) | 8<br>( 3.0 )      | 7<br>( 7.0 )                                  | 1<br>( 0.6 ) | 2<br>( 1.7 )                                   | 0<br>( 0.0 ) | 1<br>( 1.3 ) | 5<br>( 9.4 ) |
|                    | M=3.23<br>SD=0.73 | X <sup>2</sup> = 13.806<br>df = 4<br>p < 0.01 |              | X <sup>2</sup> = 26.771<br>df = 12<br>p < 0.01 |              |              |              |

반응하였다. 따라서 연령이 낮은 교사집단이 연령이 많은 교사집단에 비해  
교재연구 및 연구활동에 노력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인 교사의 반응을 살펴보면 〈表-13〉에서 알수 있듯이 ‘그렇지 않  
다’가 22.3%, ‘보통이다’가 52.3%, ‘그렇다’가 34.4%로 나타났다( M=3.23,  
SD=0.73). 따라서 3분의 1 정도의 교사만이 교재연구 및 연구활동에 노력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대부분의 교사가 교직을 전문직이라는 견해  
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문직에 반드시 요구되는 연구활동에는 소홀히 한다  
고 생각되어, 교사들 스스로의 自省이 필요하고 생각된다.

### 3. 교직전문성에 대한 교직원유형별 반응

국민학교 교사들이 지각하는 교사전문성에 대한 그들의 교직원유형별 반응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직의 전문성, 교사양성제도, 현직연수, 교직의 자율성, 교사의 연구활동 등에 대한 교사들의 반응결과를 종합하여 그들의 교직원유형과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表-14>와 같다.

<表-14> 교직전문성에 대한 교직원유형별 반응 비교

| 변량원    | 자유도 | 자승화    | 평균자승화 | F    | P     |
|--------|-----|--------|-------|------|-------|
| 교직 전문성 | 2   | 1.351  | 0.676 | 2.97 | 0.053 |
| 오차변량   | 274 | 62.421 | 0.228 |      |       |
| 전체     | 276 | 63.772 |       |      |       |

<表-14>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제로 얻어진 F의 값이 2.97이므로 이는  $P=0.05$  수준에서 요구되는 값 3.03보다 작게 나타났으므로 교직원유형별 세 집단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表-15> 교직전문성에 대한 교직원유형별 평균치와 표준편차

| 교직원유형 | 인원수 | 평균    | 표준편차  |
|-------|-----|-------|-------|
| 성 직 관 | 8   | 3.131 | 0.488 |
| 전문직관  | 255 | 3.036 | 0.480 |
| 노동직관  | 14  | 2.729 | 0.427 |

이상의 결과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表-15>에서 알 수 있듯이 성직관( $M=3.131$ )과 전문직관( $M=3.036$ )은 노동직관( $M=2.729$ )보다 상대적으로 만족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밝혀졌음을 알 수 있다.

#### 4. 教師의 地位

교사의 교직에 대한 의식은 교사의 지위에 대한 인식의 정도에 따라 크게 그 형태를 달리할 수 있다. 따라서 교사 자신이 교사의 지위를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가를 파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교사의 사회적 지위, 경제적 대우, 교육의 자주성과 중립성, 교원복지에 대한 교사의 반응을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국민학교 교사의 사회적 지위

교사 자신이 교사의 사회적 지위를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설문, 『사회에서의 교사의 지위나 신뢰도는 높다고 생각한다』에 대한 반응결과는 <表-16>과 같다.

① 남녀교사별 반응 비교: <表-16>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제로 얻어진  $X^2$ 의 값이 7.871이므로 이는  $P=0.05$  수준에서 요구되는 값 9.488보다 작게 나타났으므로 사회에서의 교사의 지위나 신뢰도에 대하여 두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가 없게 나타났다.

② 연령별 반응 비교: <表-16>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제로 얻어진  $X^2$ 의 값이 7.318이므로 이는  $P=0.05$  수준에서 요구되는 값 21.026보다 훨씬 작게 나타나 교사의 사회적 지위에 대하여 연령별 교사의 각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교사의 반응은 <表-16>에서 알 수 있듯이 '그렇지 않다'가 43.3%, '보통이다'가 33.2%, '그렇다'가 23.5%로 나타났다. ( $M=3.23, SD=0.73$ ). 따라서 3분의 1 정도의 교사만이 사회에서의 교사의 지위나 신뢰도

<表-16> 국민학교 교사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반응

N=277

| 구분<br>반응           | 全體<br>N<br>( % )      | 性 別                                          |               | 年 齡 別                                         |              |              |              |
|--------------------|-----------------------|----------------------------------------------|---------------|-----------------------------------------------|--------------|--------------|--------------|
|                    |                       | 男                                            | 女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 전혀 그렇지 않다<br>( 1 ) | 26<br>( 9.4 )         | 14<br>(14.0)                                 | 12<br>( 6.8 ) | 6<br>(10.0)                                   | 9<br>(10.5)  | 7<br>( 9.0 ) | 4<br>( 7.5 ) |
| 별로 그렇지 않다<br>( 2 ) | 94<br>(33.9)          | 37<br>(37.0)                                 | 57<br>(32.2)  | 17<br>(28.3)                                  | 29<br>(33.7) | 31<br>(39.7) | 17<br>(32.1) |
| 보 통 이 다<br>( 3 )   | 92<br>(33.2)          | 27<br>(27.0)                                 | 65<br>(36.7)  | 22<br>(36.7)                                  | 32<br>(37.2) | 21<br>(26.9) | 17<br>(32.1) |
| 약 간 그 령 다<br>( 4 ) | 64<br>(23.1)          | 21<br>(21.0)                                 | 65<br>(24.3)  | 15<br>(25.0)                                  | 16<br>(18.6) | 18<br>(23.1) | 15<br>(28.3) |
| 아 주 그 령 다<br>( 5 ) | 1<br>( 0.4 )          | 1<br>( 1.0 )                                 | 0<br>( 0.0 )  | 0<br>( 0.0 )                                  | 0<br>( 0.0 ) | 1<br>( 1.3 ) | 0<br>( 0.0 ) |
|                    | M=2.71<br>SD=<br>0.95 | X <sup>2</sup> = 7.871<br>df = 4<br>p > 0.05 |               | X <sup>2</sup> = 7.318<br>df = 12<br>p > 0.05 |              |              |              |

가 높다는 반응을 보였다.

따라서 교사들은 성별, 연령에 관계없이 거의 같은 정도로 사회에서의 교사의 지위나 신뢰도가 높다는 것을 부정하고 있다.

교사들이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에 대하여 성별, 연령에 관계없이 부정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은 경제적 처우의 문제와 교권의 약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어 진다..

## 2) 국민학교 교사의 경제적 대우

교사에 대한 경제적 대우는 교사의 지위를 가름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따라서 경제적 대우가 교사의 교직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된다는 점에서 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

교사들이 교사의 경제적 대우를 어떻게 인지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설문, 『우리나라의 사회적 여건과 다른 전문직에 비추어 교사의 보수는 충분하다고 생각한다』에 대한 교사들의 반응은 <表-17>과 같다.

① 남녀교사별 반응 비교:<表-17>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제로 얻어진  $X^2$ 의

<表-17> 국민학교 교사의 경제적 대우에 대한 반응 N=277

| 구분<br>반응           | 全體<br>N<br>(%)    | 性 別                                 |               | 年 齡 別                                 |              |              |              |
|--------------------|-------------------|-------------------------------------|---------------|---------------------------------------|--------------|--------------|--------------|
|                    |                   | 男                                   | 女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 전혀 그렇지 않다<br>( 1 ) | 63<br>(22.7)      | 31<br>(31.0)                        | 32<br>(18.1)  | 18<br>(30.0)                          | 24<br>(27.9) | 16<br>(20.5) | 5<br>( 9.4)  |
| 별로 그렇지 않다<br>( 2 ) | 152<br>(54.9)     | 48<br>(48.0)                        | 104<br>(58.8) | 31<br>(51.7)                          | 49<br>(57.0) | 41<br>(52.6) | 31<br>(58.5) |
| 보 통 이 다<br>( 3 )   | 53<br>(19.1)      | 19<br>(19.0)                        | 34<br>(19.2)  | 10<br>(16.7)                          | 10<br>(11.6) | 17<br>(21.8) | 16<br>(30.2) |
| 약 간 그 령 다<br>( 4 ) | 7<br>( 2.5)       | 1<br>( 1.0)                         | 6<br>( 3.4)   | 1<br>( 1.7)                           | 2<br>( 2.3)  | 4<br>( 5.1)  | 0<br>( 0.0)  |
| 아 주 그 령 다<br>( 5 ) | 2<br>( 0.7)       | 1<br>( 1.0)                         | 1<br>( 0.6)   | 0<br>( 0.0)                           | 1<br>( 1.2)  | 0<br>( 0.0)  | 1<br>( 1.9)  |
|                    | M=2.04<br>SD=0.76 | $X^2 = 7.651$<br>df = 4<br>p > 0.05 |               | $X^2 = 19.318$<br>df = 12<br>p > 0.05 |              |              |              |

값이 7.651이므로 이는  $P=0.05$  수준에서 요구되는 값 9.488보다 작게 나타났으므로 교사의 경제적 대우에 대한 반응에서 남녀교사 두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② 연령별 반응 비교: <表-17>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제로 얻어진  $X^2$ 의 값이 19.318이므로 이는  $P=0.05$  수준에서 요구되는 값 21.026보다 작게 나타났으므로 교사의 경제적 대우에 대한 반응에서 연령별 각 집단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적인 반응을 살펴보면 <表-17>에서 알 수 있듯이 '그렇지 않다'가 77.6%, '보통이다'가 19.1%, '그렇다'가 3.2%로 나타났다 ( $M = 2.04$ ,  $SD = 0.76$ ).

따라서 성별, 연령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국민학교 교사들은 교사의 경제적 대우가 우리나라의 사회적 여건과 다른 專門職에 비추어 충분하지 못하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교사의 복지후생제도

교사들이 교사의 복지후생제도에 대하여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제시한 설문, 『교사 복지후생제도 및 시설은 교권을 수호하고 직무를 수행하는 데 충분하다고 생각한다』에 대한 반응은 <表-18>과 같다.

① 남녀교사별 반응 비교: <表-18>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제로 얻어진  $X^2$ 의 값이 2.651이므로 이는  $P=0.05$  수준에서 요구되는 값 9.488보다 작게 나타났으므로 교사의 후생복지제도 및 시설에 대한 반응에서 남녀교사 두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表-18〉 교사 복지후생제도에 대한 반응

N=277

| 구분<br>반응           | 全體<br>N<br>( % )   | 性 別                                          |              | 年 齡 別                                          |              |              |              |
|--------------------|--------------------|----------------------------------------------|--------------|------------------------------------------------|--------------|--------------|--------------|
|                    |                    | 男                                            | 女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 전혀 그렇지 않다<br>( 1 ) | 72<br>(26.0)       | 29<br>(29.0)                                 | 43<br>(24.3) | 16<br>(26.7)                                   | 29<br>(33.7) | 16<br>(20.5) | 11<br>(20.8) |
| 별로 그렇지 않다<br>( 2 ) | 153<br>(55.2)      | 55<br>(55.0)                                 | 98<br>(55.4) | 31<br>(51.7)                                   | 48<br>(55.8) | 46<br>(59.0) | 28<br>(52.8) |
| 보 통 이 다<br>( 3 )   | 46<br>(16.6)       | 14<br>(14.0)                                 | 32<br>(18.1) | 11<br>(18.3)                                   | 6<br>( 7.0)  | 15<br>(19.2) | 14<br>(26.4) |
| 약 간 그 령 다<br>( 4 ) | 4<br>( 1.4)        | 2<br>( 2.0)                                  | 2<br>( 1.1)  | 1<br>( 1.7)                                    | 2<br>( 2.3)  | 1<br>( 1.3)  | 0<br>( 0.0)  |
| 아 주 그 령 다<br>( 5 ) | 2<br>( 0.7)        | 0<br>( 0.0)                                  | 2<br>( 1.1)  | 1<br>( 1.7)                                    | 1<br>( 1.2)  | 0<br>( 0.0)  | 0<br>( 0.0)  |
|                    | M=1.96<br>SD= 0.74 | X <sup>2</sup> = 2.651<br>df = 4<br>p > 0.05 |              | X <sup>2</sup> = 15.329<br>df = 12<br>p > 0.05 |              |              |              |

② 연령별 반응 비교: 〈表-18〉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제로 얻어진 X<sup>2</sup>의 값이 15.329이므로 이는 P=0.05 수준에서 요구되는 값 21.026보다 작게 나타났으므로 교사의 복지후생제도 및 시설에 대한 반응에서 연령별 각 집단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적인 교사의 반응은 〈表-18〉에서 알 수 있듯이 '그렇지 않다'가 81.2%, '보통이다'가 16.6%, '그렇다'가 2.1%로 나타났다 ( M=3.23, SD=0.73). 따라서 성별, 연령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교사들은 교사의 복지후생제도 및 시설이 敎權을 수호하고 직무를 수행하는데 충분하지 못하다는 부

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4) 교육의 자주성과 중립성

교육의 자주성과 중립성에 대하여 교사들이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가를 알아 보기 위한 설문,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한다』에 대한 반응결과는 <表-19>와 같다.

① 남녀교사별 반응 비교: <表-19>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제로 얻어진  $X^2$ 의 값이 11.369이므로 이는  $P=0.05$  수준에서 요구되는 값 9.488보다 크게

<表-19> 교육의 자주성 및 중립성에 대한 반응

N=277

| 구분<br>반응           | 全體<br>N<br>( % )  | 性 別                                  |              | 年 齡 別                                 |              |              |              |
|--------------------|-------------------|--------------------------------------|--------------|---------------------------------------|--------------|--------------|--------------|
|                    |                   | 男                                    | 女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 전혀 그렇지 않다<br>( 1 ) | 43<br>(15.5)      | 22<br>(22.0)                         | 21<br>(11.9) | 13<br>(21.7)                          | 18<br>(20.9) | 6<br>( 7.7)  | 6<br>(11.3)  |
| 별로 그렇지 않다<br>( 2 ) | 120<br>(43.3)     | 47<br>(47.0)                         | 73<br>(41.2) | 30<br>(50.0)                          | 45<br>(52.3) | 28<br>(35.9) | 17<br>(32.1) |
| 보 통 이 다<br>( 3 )   | 90<br>(32.5)      | 22<br>(22.0)                         | 68<br>(38.4) | 12<br>(20.0)                          | 21<br>(24.4) | 34<br>(43.6) | 23<br>(43.4) |
| 약 간 그 령 다<br>( 4 ) | 22<br>( 7.9)      | 9<br>( 9.0)                          | 13<br>( 7.3) | 5<br>( 8.3)                           | 2<br>( 2.3)  | 9<br>(11.5)  | 6<br>(11.3)  |
| 아 주 그 령 다<br>( 5 ) | 2<br>( 0.7)       | 0<br>( 0.0)                          | 2<br>( 1.1)  | 0<br>( 0.0)                           | 0<br>( 0.0)  | 1<br>( 1.3)  | 1<br>( 1.9)  |
|                    | M=2.35<br>SD=0.86 | $X^2 = 11.369$<br>df = 4<br>p < 0.05 |              | $X^2 = 28.881$<br>df = 12<br>p < 0.01 |              |              |              |

나타났으므로, 남녀교사 두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교사 집단은 '그렇지 않다'에 69.0%, '보통이다'에 22.0%, '그렇다'에 9.0%로 반응하였고, 여교사 집단은 '그렇지 않다'에 63.1%, '보통이다'에 38.4%, '그렇다'에 8.4%로 반응하였다. 따라서 남교사가 여교사보다 더 교육의 자주성과 중립성에 대하여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② 연령별 반응 비교: <表-19>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제로 얻어진  $\chi^2$ 의 값이 28.881이므로 이는  $P=0.01$  수준에서 요구되는 값 26.217보다 크게 나타났으므로, 연령별 각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에 반응한 20대 교사는 71.7%, 30대 교사는 73.2%, 40대 교사는 43.6%, 50대 교사는 43.4%로 반응하였다. 따라서 연령이 낮은 교사집단이 연령이 많은 교사집단에 비해 교육의 자주성과 중립성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교사들의 반응은 <表-19>에서 알 수 있듯이 '그렇지 않다'가 58.8%, '보통이다'가 32.5%, '그렇다'가 8.6%로 나타났다 ( $M=2.35$ ,  $SD=.86$ ). 반 수 정도의 교사들이 교육의 자주성과 중립성에 대하여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 평균도 다른 것에 비하여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여교사보다는 남교사가, 그리고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의 자주성과 중립성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낮은 반응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교육은 교육 본래

의 目的에 맞게 운영 실시되어야 하며 어떠한 정치적, 파당적 기타 개인적 편견의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sup>50)</sup>는 敎育法 第五條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5) 국민학교 교사의 업무량

교사의 업무량에 대하여 교사들이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설문, 『국민학교 교사의 업무량은 적당한 편이라고 생각한다』에 대한 반응은 <表-20>과 같다.

<表-20> 국민학교 교사의 업무량에 대한 반응

N=277

| 구분<br>반응           | 全體<br>N<br>( % )   | 性 別                                          |              | 年 齡 別                                          |              |              |              |
|--------------------|--------------------|----------------------------------------------|--------------|------------------------------------------------|--------------|--------------|--------------|
|                    |                    | 男                                            | 女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 전혀 그렇지 않다<br>( 1 ) | 47<br>(17.0)       | 21<br>(21.0)                                 | 26<br>(14.7) | 15<br>(25.0)                                   | 18<br>(20.9) | 9<br>(11.5)  | 5<br>( 9.4)  |
| 별로 그렇지 않다<br>( 2 ) | 146<br>(52.7)      | 51<br>(51.0)                                 | 95<br>(53.7) | 28<br>(46.7)                                   | 51<br>(59.3) | 42<br>(53.8) | 25<br>(47.2) |
| 보 통 이 다<br>( 3 )   | 75<br>(27.1)       | 26<br>(26.0)                                 | 49<br>(27.7) | 15<br>(25.0)                                   | 15<br>(17.4) | 23<br>(29.5) | 22<br>(41.5) |
| 약 간 그 령 다<br>( 4 ) | 8<br>( 2.9)        | 1<br>( 1.0)                                  | 7<br>( 4.0)  | 1<br>( 1.7)                                    | 2<br>( 2.3)  | 4<br>( 5.1)  | 1<br>( 1.9)  |
| 아 주 그 령 다<br>( 5 ) | 1<br>( 0.4)        | 1<br>( 1.0)                                  | 0<br>( 0.0)  | 1<br>( 1.7)                                    | 0<br>( 0.0)  | 0<br>( 0.0)  | 0<br>( 0.0)  |
|                    | M=2.17<br>SD= 0.75 | X <sup>2</sup> = 5.355<br>df = 4<br>p > 0.05 |              | X <sup>2</sup> = 20.507<br>df = 12<br>p > 0.05 |              |              |              |

50) 韓國法製研究會편, 文敎法典(서울:育志社, 1982)

① 남녀별 반응: <表-20>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제로 얻어진  $X^2$ 의 값이 5.355이므로 이는  $P=0.05$  수준에서 요구되는 값 9.488보다 작게 나타났으므로 교사의 업무량에 대한 남녀교사 두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② 연령별 반응: <表-20>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제로 얻어진  $X^2$ 의 값이 20.507이므로 이는  $P=0.05$  수준에서 요구되는 값 21.026보다 약간 작게 나타났으므로 교사의 업무량에 대한 연령별 각 집단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적인 교사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表-20>에서 알 수 있듯이 '그렇지 않다'가 69.7%, '보통이다'가 27.1%, '그렇다'가 3.3%로 나타났다. ( $M=2.17$ ,  $SD=0.75$ ). 이는 半 이상의 교사들이 교사의 업무량이 적정하다는 것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성별 및 연령에 관계없이 많은 교사들이 국민학교 교사의 업무량이 과중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 5. 교사의 지위에 대한 교직원유형별 반응

국민학교 교사들이 지각하는 教師의 地位는 그들의 교직원유형에 따라 어떻게 다른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사의 사회적 지위, 경제적 대우, 교사 복지후생제도, 교육의 자주성, 교사의 업무량에 대한 교사들의 반응을 통합하여 그들의 교직원유형과 비교·분석하여 보았다. 교사의 지위에 대한 교직원유형별 반응결과는 <表-21>과 같다.

〈表-21〉 교사의 지위에 대한 교직원유형별 반응

| 변량원    | 자유도 | 자승화    | 평균자승화 | F    | P     |
|--------|-----|--------|-------|------|-------|
| 教師의 地位 | 2   | 2.948  | 1.474 | 5.88 | 0.003 |
| 오차변량   | 274 | 68.698 | 0.251 |      |       |
| 전체     | 276 | 71.645 |       |      |       |

〈表-21〉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제로 얻어진 F의 값이 5.88이므로 이는  $P=0.05$  수준에서 요구되는 값 3.03보다 크게 나타났으므로 교사의 지위에 대한 견해에는 교직원유형별 세 집단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表-22〉 교사의 지위에 대한 교직유형별 평균치와 표준편차

| 구 분   | 인 원 수 | 평 균  | 표준편차  |
|-------|-------|------|-------|
| 성 직 관 | 8     | 2.63 | 0.615 |
| 전문직관  | 255   | 2.51 | 0.501 |
| 노동직관  | 14    | 2.05 | 0.420 |

이러한 결과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表-22〉에서 알 수 있듯이 성직관의 평균이 2.63, 전문직관이 2.51, 노동직관이 2.05로 성직관이 가장 높고 노동직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동직관의 교사는 성직관, 전문직관의 교사에 비하여 교사의 지위를 매우 낮게 인식하고 있다.

## VI. 要約 및 結論

### 1. 要約

본 연구는, 국민학교 교사의 교직관유형(聖職觀, 專門職觀, 勞動職觀)이 그들의 배경변인에 따라 어떻게 다르며, 교직전문성과, 교사의 지위는 그들의 배경변인과 교직관유형에 따라서 어떻게 다른가를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검사의 도구는 先行의 研究들을 참고하여 본 연구자가 作成하였다.

이와 같이 작성된 질문지는 서울特別市에 있는 국민학교 중 11개교를 지역별로 표집하여 340명의 교사들에게 배부되었다. 회수된 질문지는 302매였고, 이 중 부실한 응답을 보인 35매를 제외한 277매를 본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자료처리를 위하여  $X^2$ (Chi-square)檢證과 變量分析(ANOVA)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밝혀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국민학교 교사의 敎職觀類型.

① 국민학교 교사들의 교직관유형 경향은 전문직관 92.1%, 노동직관 5.0%, 성직관 2.9%로 나타났다.

② 노동직관은 30대의 교사가, 성직관은 50대의 교사가 다른 집단의 교사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③ 국민학교 교사의 교직관유형은 연령을 제외한 배경변인(성별, 학력, 보직)에 따라서는  $X^2$ 검증 결과 유의한 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敎職專門性

① 교직의 전문성: 교직을 전문직이라고 지각하는 교사는 98.9%로, 성별, 연령별로는 유의한 차가 없었다.

② 교사양성제도의 교직전문성 기여도: 교사양성제도가 교직의 전문성을 높일 만큼 잘되어 있다고 반응한 교사는 14.8%, 그렇지 않다고 반응한 교사는 51.2%이었고, ( $M=2.57, SD=0.93$ ), 연령이 30대 이하의 교사가 보다 더 부정적이었으며,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는 없었다.

③ 현직연수의 교직전문성 기여도: 현직에서 실시되는 각종 연수가 교직의 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교사는 13.3%,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교사는 48.7%이었고( $M=2.58, SD=0.83$ ), 연령이 30대인 교사가 그외의 교사보다 더 부정적이었으며,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는 없었다.

④ 대학원 교육의 교직전문성 기여도: 대학원 교육이 교직의 전문성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교사는 59.6%,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교사는 16.9%이었고( $M=3.59, SD=0.97$ ), 남교사가 여교사보다 더 긍정적이었으며, 연령이 낮은 교사가 높은 교사보다 더 긍정적이었다.

⑤ 교직의 자율성: 교사의 신념이나 뜻에 맞게 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 여유나 융통성이 많이 허용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교사는 39.7%,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교사는 28.2%( $M=3.13, SD=0.99$ ), 연령이 많은 교사일수록 더 긍정적이었으며,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는 없었다.

⑥ 국민학교 교사의 연구활동: 교사 스스로 연구활동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교사는 34.4%,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교사는 22.3%였고( $M=3.23, SD=0.73$ ), 남교사가 여교사보다 더 긍정적이었으며, 연령이 높

은 교사가 연령이 낮은 교사보다 더 긍정적이었다.

### 3) 敎職專門性에 대한 교직원유형별 반응

국민학교 교사의 교직전문성에 대한 견해에는 교직원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가 없었다.

### 4) 敎師의 地位

① 교사의 사회적 지위: 사회에서의 교사의 지위나 신뢰도가 높다고 생각하는 교사는 23.5%,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교사는 43.3%이었고( $M=2.71$ ,  $SD=0.95$ ), 성별 및 연령별로 유의한 차는 없었다.

② 교사의 경제적 대우: 우리나라 사회적 여건과 다른 전문직에 비추어 교사의 보수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교사는 3.2%,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교사는 77.6%이었고, 성별 및 연령별로 유의한 차는 없었다.

③ 교사 복지후생제도: 교사 복지후생제도 및 시설은 교권을 수호하고 직무를 수행하는데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교사는 2.1%,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교사는 81.2%이었고( $M=1.96$ ,  $SD=0.74$ ), 성별 및 연령별로 유의한 차는 없었다.

④ 교육의 자주성과 중립성: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보장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교사는 8.6%,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교사는 58.8%이었고( $M=2.35$ ,  $SD=0.86$ ), 남교사가 여교사보다 더 부정적이었으며, 연령이 낮은 교사가 연령이 높은 교사보다 더 부정적이었다.

⑤ 교사의 업무량: 국민학교 교사의 업무량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교

사는 3.3%,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교사는 69.7%이었고( $M=2.17$ ,  $SD=0.75$ ),  
성별 및 연령별로 有意한 差는 없었다.

#### 5) 教師의 地位에 대한 교직유형별 반응

국민학교 교사의 교사의 지위에 대한 견해는 그들의 교직관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가 있었다.

성직관( $M=2.63$ )과 전문직관( $M=2.51$ )에 비하여 노동직관( $M=2.05$ )은 가장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 2. 結 論

본 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난 結論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학교 교사들이 가장 많이 지각하는 敎職觀類型은 專門職觀이  
며, 성직관은 연령이 50대인 교사가, 노동직관은 30대인 교사가 다른 연령  
의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지각하고 있다.

둘째, 교사양성기관과 현직연수의 교직전문성 기여도 및 교직의 자율성  
과 연구활동에 대하여 연령이 높은 교사가 더 긍정적이었다. 대학원 교육의  
교직전문성 기여도는 연령이 낮은 교사와 남교사가 더 긍정적이었다.

셋째, 국민학교 교사의 敎職專門性에 대한 견해는 그들의 교직관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가 없었다.

넷째, 국민학교 교사들은 교육의 자주성과 중립성에 대하여 여교사가 남  
교사보다 더 긍정적이며, 연령이 높은 교사가 연령이 낮은 교사보다 더 긍

정적이었다. 교사의 사회적 지위, 경제적 대우 및 업무량에 대하여 그들의 배경변인(성별,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를 보이지 않았다.

다섯째, 성직관과 전문직관의 교사가 노동직관의 교사에 비해 교사의 지위에 대하여 더 긍정적이었다.

이상의 본 연구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었다.

첫째, 국민학교 교사들이 교직을 專門職으로 인식하면서도 전문직으로 대우되고 있지 않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으므로, 교사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위한 지원이 요구된다.

둘째, 학교행정가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교사의 敎職觀이 변화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일정한 기간마다 全國的인 교직관의 변화를 조사하여 학교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기초자료로 참고하여야 할 것이다.

# 參 考 文 獻

## 1. 韓國文獻

- 姜永三, “敎職專門性”, 「敎職과 師道」, 서울: 서울特別市敎育委員會, 1983.
- 高成男, “國民學校 敎師의 敎職觀과 獻身度에 관한 研究”,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敎育대학원, 1990.
- 高弼坤, “敎師의 敎職觀에 관한 研究”,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敎育대  
학원, 1985.
- 金鳳守, 「敎師와 初等敎育」, 서울:螢雪出版社, 1992.
- 金潤泰 外, 「敎師와 地域社會」, 서울:培英社, 1984
- 金宗西, “敎員의 專門性”, 「現代社會와 敎員」, 서울: 서울特別市敎育委員會,  
1982.
- 金鐘喆, 「敎師論」, 서울:科學敎育社, 1991.
- \_\_\_\_\_, “現代社會와 敎員”, 「現代社會와 敎員」, 서울: 서울特別市敎育委員  
會, 1982.
- 南億祐 外, 「敎師論」, 서울:敎育出版社, 1989.
- \_\_\_\_\_ 外, 「敎育大辭典」, 서울:敎育科學社, 1991.
- 朴東俊, 「學校와 地域社會」, 서울:東亞出版社, 1982.
- 朴璉鎬, 「敎師와 人間關係論」, 서울:法文社, 1989.
- 朴雨植, “敎員의 地位 向上”, 「敎育評論」(Vol.192, No.10), 1974.

- 朴雨贊, “初等教師와 中等教師의 敎職觀 比較 研究”, 碩士學位論文, 檀國大學校 敎育대학원, 1985.
- 裴種根 外, 「敎育行政 敎育經營」, 서울: 正音社, 1986.
- 徐丙勛, “初等教師의 敎職類型과 士氣에 관한 研究”, 碩士學位論文, 國民大學校 敎育대학원, 1990.
- 申述泳, “中等教師의 敎職觀에 관한 研究”, 碩士學位論文, 延世大學校 敎育대학원, 1987.
- 吳賢淑, “教師의 敎職觀 및 價値觀에 관한 研究”, 碩士學位論文, 延世大學校 敎育대학원, 1983.
- 尹鉞重, “中等教師 敎職觀과 職務滿足度와의 關係에 관한 研究”, 碩士學位論文, 建國大學校 敎育대학원, 1986.
- 魏八萬, “教師의 敎職觀에 관한 研究”, 碩士學位論文, 檀國大學校 敎育대학원, 1987.
- 李敦熙, “敎員의 敎職觀”, 「敎育」 제6호, 서울: 中央敎育研究院, 1976.
- 李榮德, “福祉社會 現實과 敎育”, 韓國敎育學會編, 「福祉社會와 敎育」, 서울: 培英社, 1980.
- 趙光南, “國民學校 教師의 敎職觀과 自律性 認識에 관한 研究”, 碩士學位論文, 延世大學校 敎育대학원, 1989.
- 鄭宇鉉, 「敎師論」, 서울: 培英社, 1992.
- 鄭元植, “現代社會에서의 敎育”, 「敎職과 師道」, 서울: 서울特別市敎育委員會, 1981.
- 鄭泰時, “敎員의 地位에 관한 勸告”, 「敎育評論」(Vol. 156, No. 10), 1991.

車京守, “敎職의 社會 · 文化的 考察”, 「敎職과 師道」, 서울: 서울特別市 敎育委員會, 1984.

車潛世, “敎師의 敎職觀에 관한 研究”, 碩士學位論文, 仁何大學校 敎育대학원, 1980.

崔潛仁, “初等敎師의 敎職觀과 價値觀에 관한 研究”, 석사학위논문, 관동대학교 敎育대학원, 1990.

韓國法製研究會, 「文敎法典」, 서울:育志社, 1982.

## 2. 外國文獻

Anderson, A.W., Education for the Profession,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2.

Bruner J.S., The Process of Education, new York: Alfred Knopf, Inc. and Random House, Inc., 1963.

Dreeben Revert, The nature of teaching, Scoff Foresman, 1970.

Hall Rechard H., Occupations and the Social structure, Englewood clifs, N.J. prentice-Hall, 1979.

Hook Sidney, Education for Mordon Man, New York: The dial Press, 1942.

Hoyle, E., The Role of the Teacher, London: Routledge & Kezan, 1972.

Liberman M., Education as a Profession, Prentice-Hall Inc., 1958.

Pigors Paul & Myers Charles A., Personnel Administrasion, new york:Mc-Graw-Hill Bok Co., 1981.

Pullias E.V. and Young J.D., A Teacher is Many Thing, Seoul:Pan Korea Book, 1973.

< 附 錄 >

## 교직원 조사를 위한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국민학교 교사의 교직에 대한 인식과 역할에 관한 연구 자료를 얻기위해 선생님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 자료는 학위 논문 작성을 위한 것으로서 연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이오니 본 연구를 협조하는 뜻에서 성의껏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992년 9월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육행정전공

박 준 회 올림

## 참 고 사 항

1. 성 별 : 남 \_\_\_\_\_ 여 \_\_\_\_\_
2. 연 령 : 20대 \_\_\_\_\_ 30대 \_\_\_\_\_ 40대 \_\_\_\_\_ 50대 \_\_\_\_\_
3. 학 력 : 고졸 \_\_\_\_\_ 대졸(2년) \_\_\_\_\_ 대졸(4년) \_\_\_\_\_ 대학원 \_\_\_\_\_
4. 출 신 : 교육계(사범) \_\_\_\_\_ 비교육계 \_\_\_\_\_
5. 직 위 : 주임교사 \_\_\_\_\_ 교사 \_\_\_\_\_

## 응 답 요 령

1. 해당하는 난에 V 표를 하나만 표시하여 주십시오.
2. 설명: ① 매우 그렇지 않다 - - 적극 부정  
 ② 별로 그렇지 않다 - - 약간 부정  
 ③ 보 통 이 다 - - - - 보 통  
 ④ 약간 그렇다 - - - - 약간 긍정  
 ⑤ 매우 그렇다 - - - - 적극 긍정

### 3. 예시

선생님께서 여행을 비교적 좋아하는 편일 경우

| 내 용         | 적극<br>부정 | 약간<br>부정 | 보통 | 약간<br>긍정 | 적극<br>긍정 |
|-------------|----------|----------|----|----------|----------|
| 나는 여행을 좋아한다 |          |          |    | V        |          |

| 번호 | 내용                                            | 적극<br>부정 | 약간<br>부정 | 보통 | 약간<br>긍정 | 적극<br>긍정 |
|----|-----------------------------------------------|----------|----------|----|----------|----------|
| 1  | 국민학교 교사는 성직자와 같이 소명의식을 갖고 생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          |    |          |          |
| 2  | 국민학교 교사는 전문직으로서의 지식과 소양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          |    |          |          |
| 3  | 국민학교 교사라 해서 다른 직업인과 특별히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          |          |    |          |          |
| 4  | 국민학교 교사는 교육자로서 청빈한 생활에 만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          |    |          |          |
| 5  | 국민학교 교사는 전문직으로서의 적절한 경제적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          |          |    |          |          |
| 6  | 교사도 가능하다면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생활을 위해 부업을 가져도 좋다고 생각한다. |          |          |    |          |          |
| 7  | 국민학교 교사는 항상 언행에 있어 성직자처럼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          |    |          |          |

| 번호 | 내용                                            | 적극<br>부정 | 약간<br>부정 | 보통 | 약간<br>긍정 | 적극<br>긍정 |
|----|-----------------------------------------------|----------|----------|----|----------|----------|
| 8  | 교사는 성직자처럼 생활할 수는 없지만 모든 행동이 사회에 모범이 되어야 한다    |          |          |    |          |          |
| 9  | 교사도 일반 사회인과 같은 수준의 도덕적 윤리 규범을 지키면 된다고 생각한다.   |          |          |    |          |          |
| 10 | 교직은 높은 학력과 지식이 요구되는 전문직이라고 생각한다.              |          |          |    |          |          |
| 11 | 교사 양성 제도는 전문성을 높일 만큼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          |          |    |          |          |
| 12 | 현직에서 실시되는 각종 연수는 전문성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          |          |    |          |          |
| 13 | 국민학교 교사도 전문성 향상을 위해 대학원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          |          |    |          |          |
| 14 | 교직은 나의 신념이나 뜻에 맞게 학생을 가르칠 수있는 자율성이 많이 부여되고 있다 |          |          |    |          |          |

| 번호 | 내용                                              | 적극<br>부정 | 약간<br>부정 | 보통 | 약간<br>긍정 | 적극<br>긍정 |
|----|-------------------------------------------------|----------|----------|----|----------|----------|
| 15 | 나는 교재연구 및 연구활동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          |          |    |          |          |
| 16 | 사회에서의 교사의 지위나 신뢰도는 높다고 생각한다.                    |          |          |    |          |          |
| 17 | 우리나라의 사회적 여건과 다른 전문직에 비추어 교사의 보수는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          |          |    |          |          |
| 18 | 교사 복지후생제도 및 시설은 교권을 수호하고 직무를 수행하는 데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          |          |    |          |          |
| 19 |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          |          |    |          |          |
| 20 | 국민학교 교사의 업무량은 적당한 편이라고 생각한다.                    |          |          |    |          |          |

# ABSTRACT

## A Study on the Primary School Teacher's Teachership-View

Park, Joon-hoe

Major in Educational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Hansung University

The purpose of study is to investigate into how the type of the teachership-view (holy profession-view, expert profession-view, and labor job-view) of the primary school teachers vary, depending upon the factors of their background, and the specialty of teaching profession and the status of the teacher vary, depending upon the factors of their teachership.

The questionnaire used in this study was made up in the light of precedent studies. The test of  $X^2$ (chi-square) and ANOVA were conducted for data processing.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following conclusion was made:

Firstly, it was shown that most of primary school teachers as subject for this study perceived their own teachership-view as the expert profession-view, that the teacher in the 50's of age would perceive their own teachership-view as the holy profession-view, and

that the teachers in 30's of age would perceive their own teaching profession-view as labor job-view relatively more than other age groups.

Secondly, it was shown that the teacher of higher age would think more positively of the contribution of the teacher training institution and the in-service training to the specialty of teachership. And, it was found that the teacher of lower age and the male teacher would think more positively of the contribution of the education in the graduate school to the specialty of teaching profession.

thirdly, with reference to the primary school teacher's opinion on the specialty of teaching profession, it was not shown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depending on the pattern of their teachership-view.

Fourthly, it was shown that the female teacher in the primary school would consider the independency and neutrality of education as more positive than the male teacher in the primary school, and that the teacher of higher age would consider the independency and neutrality of education as more positive than the teacher of lower age. The teacher in the primary school as subject would not shown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regarding his socio economic status treatment and amount of work, depending upon a factor of their

background by sexes, and by ages.

Fifthly, it was shown that the teachers with the holy profession-view and the expert profession-view would think more positively of the teacher's socio economic status than the teacher with labor job-view.